Entertainment p/17

카리스마 여전사 손예진

메트로 2014년 7월 30일 수요일 제3028호 www.metroseoul.co.kr

Sports p/23

손흥민·걸그룹 민아 열애?

휴전선 횡단 발대식 '2014 휴전선 155마일 횡단' 발대식이 2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전쟁기념관에서 열렸다. 동아오츠카와 한국스카우트연맹이 주최한 이행사에서 횡단에 참가하는 청소년 들이 평화의 메시지가 담긴 풍선을 하늘로 날려보내고 있다. /뉴시스

<박스권 장세 + 코스피>

'코스피 = 박스피' 오명 탈출 보인다

한국 증시가 '박스피'의 오명을 벗어날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

새 경제팀이 41조원의 대규모 자금을 시중에 푸는 '한국판 양적완화' 정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하자 국내 증시가 연일 상승 랠리다. 코스피지수는 3년 만에 2060선까지 탈환했다. 2000선에서 번번이 발목 잡히던 지수가 이번에는 2011년 5월 2일 기록한 사상최고치 2228.96까지 돌파할 것이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29일 코스피지수는 2061.97의 종가로 거래를 마감했다. 연사흘째 오른 것이다. 이날 장중 2065.96까지 상승해 종가 기준으로는 2011년 8월3일 2066.26 이후, 장중 고점 기준으로는 2011년 8월4일 2071.03 이후 3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증권사 리서치센터와 자산운용사 최고운용책임자(CIO) 등은 잇따라 "최경환 경제팀의 정책 기대감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며 "코스피의 박스권 밴드 자체가 상향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제2기 경제팀의 부동산시장 활성화, 내수부양, 금리 인하 기조가 전반적으로 모두 국내 주식시장에 호재가 될 재료라는 것이다.

최광욱 에셋플러스자산운용 CIO는 "특히 새 경제팀의 배당 확대정책은 분명 한국 증시를 재평가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코스피 박스권 밴드 예상치를 종전 1900~2000선에서 1950~2100선으로 올려잡았다.

최 CIO는 "다만 코스피지수가 추세적 상승으로 갈려면 기업의 실적이 늘어나야 하는데 이는 요원한 측면이 있다"며 "일단 박스권 상단은 2100선 정도에서 천장에 부닥칠 것"이라고 봤다.

오온규 트러스투자자문 주식운용부장은 "이달 들어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며 "지난 달까지 코스피가 2000선을 넘더라도 시중 연속 유지하진 못했는데 7월부터는 펀드 환매물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의 영향으로 코스피가 3년 만에 2060선을 넘어선 29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 외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시스

새 경제팀 '한국판 양적완화' 지수 상승랠리 · 3년만에 2060 "기업실적 수반땐 2200 레벨업"

량이 크게 줄면서 2000선에서 삼단이 버티는 양상이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직까지 기업의 이익 흐름을 지켜봐야겠지만 실적 개선이 수반된다면 의외로 지수가 2200선을 넘는 등 멀리 갈 수 있다고 본다"며 "그렇지 않더라도 코스피 예상 밴드치는 종전에 비해 상하단치가 100포인트씩 올라간 2100~2150선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했다.

◆원-달러 환율 안정화 정책 증시에 우호적

코스피가 2000선을 저점으로 주가 상승하리란 입장이다.

김현기 아이엠투자증권 전략투자팀장은 "코스피 박스권이 1920~2080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국내 상장사의 기업이익이 3분기를 정점으로 4분기 추송할 전망인 상황에서 향후 기업 실적이 적극적으로 개선된다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으면 현 주가수익비율(PER)의 정당성이 도전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경환 경제팀의 환율 정책도 사실상 개입을 통한 원화약세으로 기닥을 잡으면서 경기부담을 완화해 국내 증시에서 우호적일 전망이다.

오 운용부장은 "원 달러 환율이 1000원 부근까지 내려갔다가 강하게 반등했다"며 "이게 가늠제가 돼서 외국인도 여를 믿어 바라보면서 한국 시장을 산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윤영교 IBK투자증권 선임연구원은 "이번에 새 경제팀이 내놓은 정책 내용을 보면 환율은 현 수준보다 낮게 가져가지 않겠다는 의도가 보인다"며 "하반기 환율은 상반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을 찾으면서 완만하게 상승하는 등 적어도 2분기에 나타난 극단적인 쏠림 현상을 당국이 방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제 공은 한국은행으로 넘어갔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윤정선 KDB대우증권 글로벌자산전략팀 책임연구원은 "이번 정책은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등 정책공조를 통해 더 큰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며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거의 사실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광혁 이트레이드증권 투자전략팀 연구원은 "이번 정책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도 있으므로 8월 금리 인하와 9월 재정지출 등을 살펴봐야 한다"며 "그러나 적어도 유럽과 중국에 이어 한국 정부도 기나긴 침묵에서 깨어나기 시작한 점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김현정기자 hjkim1@metroseoul.co.kr

첫 폭염 사망자 발생
경남서 70대 열사병 숨져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올해 처음 발생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전국 540개 의료기관과 함께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운영한 결과 지난 6월부터 이달 26일까지 345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일주일 동안에만 119명에게 온열질환이 집중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26일에는 경남에 거주하는 70대 여성 한 명이 밭에서 작업하던 중 열사병으로 쓰러져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 여성은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또 전체 온열질환자의 20.0%가 65세 이상이었으며, 50~59세의 비중도 24.3%로 확인됐다. 게다가 온열질환자 5명 중 1명은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을 앓는 만성질환자였다.

이에 보건당국은 폭염에 취약한 고령자와 독거 노인, 어린이와 만성질환자는 건강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본부 관계자는 "폭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는 건강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하다. 물을 자주 마시고 기온이 높은 시간대에는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등 여름철 건강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채원기자 hum0209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 2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에서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김영배 한국경총 회장 직무대행,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뉴시스

세월호 소극적 구조활동…공용서류 손상에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혐의

목포해경 123정 정장 체포

세월호 침몰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고도 소극적인 구조활동으로 비난을 산 목포해경 경비정 책임자가 체포됐다.

광주지검 해경 수사 전담팀은 29일 오전 3시께 목포해경 123정 정장 김모(53) 경위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김 경위에게는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혐의가 적용됐다.

김 경위는 출동 당시 근무일지를 일부 찢어버린 뒤 새로운 내용을 적어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경위를 상대로 초기 구조과정의 과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일지를 훼손했는지, 가담·공모한 해경 직원이 또 있는지 조사해 30일중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일단 명확히 드러난 혐의를 적용해 김 경위를 체포했으며 추가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사법처리 규모는 일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123정에는 모두 13명이 탔다.

123정은 침몰 당시 선체 밖으로 탈출한 승객 구조에만 급급했으며 지휘부로부터 선내 진입 지시를 받고도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한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샀다.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사실상 해체된 뒤 광주지검은 진도 VTS의 관제소홀, 구난업체 언딘과의 유착 의혹, 123정의 허술한 초동 대처 등 세가지 핵심 사안을 놓고 해경을 수사해왔다.

검찰은 센터장과 팀장 4명을 구속하는 등 진도 VTS 소속 해경 13명을 전원 기소했으며 나머지 수사는 아직 진행중이다.

/윤다혜기자 ydh@metroseoul.co.kr

지지부진한 세월호 진상규명

기자 수첩

윤다혜 (정치사회부 기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구속 여부에 초점이 맞춰지며 정작 중요한 세월호 진상 규명은 지지부진에 답답할 뿐이다.

최근 전남 순천에서 발견된 시신이 유씨로 확인되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쏠렸지만 이내 모두를 허탈하게 만들었다. 세월호 참사 책임자인 유씨가 사망하는 바람에 더 이상은 근본적인 책임을 묻고 따질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또 변사체 부검의 사인 규명에 실패함에 따라 여러 의문만 남긴채 국민에게 불신만 안겨줬다.

특히 경찰은 송치재 별장 인근에서 의문의 변사체가 유씨의 유류품과 함께 발견됐음에도 안일하게 대응해 비난이 거세지고 있는 형국이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100일이 지났지만 진상 규명은 첫 걸음도 떼지 못했다. 현재 유족들은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호소하며 보름 넘게 단식 투쟁 중이다. 단식이 점점 길어지면서 쓰러져 병원에 실려가는 유족들이 늘고 있지만 국회로부터 여전히 외면받고 있다.

정부가 진상 규명 의지가 있는건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아직 실종자 10명은 차가운 바닷속에 있는데 말이다.

유족들은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서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가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근본 지속적인 대책을 마련, 안전한 나라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바람이라고 한다.

유씨 죽음으로 도피극은 일단락 됐다지만 이에 초점이 쏠려 무엇보다 우선시해야 할 세월호 진상 규명이 등한시 돼서는 안된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놓고 서로에게 책임을 미뤄가며 평행선을 달리는 정치권은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 또한 곱지 않다는 점을 잊어선 안된다.

동작을 투표지 분류기 시험운영 7·30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28일 동작구 선관위 관계자들이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서울공고 개표소에서 투표지 분류기를 시험 운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도권 판세 여전히 요동…막판 변수는

7·30 재보선 결전의 날

7·30 재보선 선거가 드디어 결전의 날을 맞았지만 판세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29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자체 조사와 분석에 따르면 이번 국회의원 재보선 15개 지역 가운데 각 당이 확실히 우위를 점쳤다고 주장하는 곳은 각각 3곳씩이다. 남은 9곳은 혼전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의 경우 '텃밭'인 부산 해운대 기장갑과 울산 남을 등 영남 2곳과 충북 충주에서만, 새정치연합은 호남 4개 지역 가운데 전남 나주·화순과 담양·함평·영광·장성, 광주 광산을 등 3개에서만 우위를 점쳤다.

이번 선거의 최대 격전지인 수도권에서는 새누리당이 초반 새정치연합의 공천 실패 등으로 일부 반사이익을 누렸지만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뒤늦은 시신 발견과 야권 단일화 등 변수가 겹치며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경합 양상으로 치달았다는 게 양당의 공통된 주장이다.

여야는 이날 결과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는 투표율을 꼽았다.

새누리당은 재보선 지역이 15개로 비교적 많기 때문에 투표율이 이전보다는 다소 오르겠지만 30%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 새정치연합은 유병언 전 회장의 시신 발견을 기점으로 세월호 심판론이 불거지며 이번보다 야권 성향 지지자들의 투표가 오를 것으로 기대했다. /조현정기자

뉴스&뉴스

정부, 리비아 여행 금지국 재지정 검토

● 정부는 29일 이슬람 무장단체 간 전투가 격화하는 등 정정불안이 심화하는 리비아를 약 3년 만에 여행금지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르면 30일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리비아에 대한 여행경보를 현재 적색 경보(철수 권고)에서 여행 금지에 해당하는 흑색 경보로 상향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주한미군 평택 이전 계획대로 추진될 것"

● 국방부는 "용산기지이전계획(YRP)과 연합토지관리계획(LPP) 등 주한미군의 평택 이전은 애초 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9일 미 2사단의 한강 이북 잔류를 골자로 한 한미연합사단 창설 방안이 확정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한미연합사단 창설과 관련된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익위 "약침·추나요법, 실손보험서 보장해야"

● 국민권익위원회는 약침이나 추나요법 처럼 치료목적이 분명한 한방치료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권익위는 "약침 등이 치료용으로 많이 사용되는데 의료보험 적용이 안돼 환자들이 혜택을 못받는 실정이므로 치료 목적이 명확히 판단되는 범위에 대해서는 실손 의료보험에서 보장해주도록 하라"며 관련 제도개선을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에 권고했다.

박 대통령 "휴가 떠나기에는…"

여름 휴가에 들어간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시급한 현안 탓에 휴가를 떠나 있어도 편하지 않은 마음을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힘들고 길었던 시간들 휴가를 떠나기에는 마음에 여유로움이 찾아들지 않는 것은 아마도 그 시간동안 남아있는 많은 일들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우리 모두 여름 모든 분들이 건강하길 바라면서"라는 글을 올렸다.

이는 휴가 중에도 세월호 후속 조치와 경제 활성화 등 국정 현안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박 대통령의 심경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의 휴가는 오는 8월1일까지 4박5일간 예정돼 있다. 지난해 여름 휴가 당시 박 대통령은 어린 시절 추억이 있는 경남 거제시 저도를 찾았지만 올해는 외부로 나가지 않은 채 청와대 안에서 머물 계획이다. /조현정기자

유병언 운전기사도 자수

양회정, 유씨 마지막 행적·도피자금 출처 등 추궁… '김엄마' 재소환 조사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지명수배된 유씨의 운전기사 양회정(55)씨가 29일 전격 자수했다.

김엄마 김명숙(59·여)씨와 양씨 부인 유희자(52)씨에 이어 양씨마저 자수하면서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핵심 신도들의 신병 확보 작업이 사실상 일단락됐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에 따르면 양씨는 이날 오전 6시 29분께 인천지검 당직실로 전화를 걸어 자수 의사를 밝혔다.

안성의 한 친척집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양씨는 1시간 30분 뒤인 오전 8시께 택시를 타고 인천지검을 직접 찾아 자수했다.

양씨는 지난 5월 25일 새벽 3시께 유 전 회장이 숨어 있던 전남 순천 별장 인근의 야망연수원에서 잠을 자다가 수색 중인 검찰 수사관들을 발견한 뒤 유 전 회장과 따로 떨어져 전주로 도주했고 이후 행방을 감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양씨를 상대로 유 전 회장의 순천까지 도주 경로 및 순천 별장 '숲속의 추억' 에서 은신할 당시의 행적을 추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을 마지막까지 보좌한 양씨와 유 전 회장의 도피를 총괄 지휘한 김씨가 사망 전 유 전 회장의 마지막 행적을 추정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28일 검찰에 자수한 뒤 14시간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귀가한 김씨 역시 이날 오전 9시 30분께 검찰에 재소환됐다.

검찰은 유씨의 장남 대균(44)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검거된 '신엄마' 딸 박수경(34)씨에 대해서는 '자수하지 않았다' 는 이유로 구속했다.

검찰은 이날 자수한 양씨에 대해서도 불구속 수사 방침을 적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윤다혜기자 ydh@metroseoul.co.kr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총괄 지휘한 혐의를 받는 핵심 조력자인 일명 '김엄마' 김명숙씨가 29일 오전 인천시 남구 인천지방검찰청에 소환돼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웹사이트 30% 옛 지번 주소 쓴다

올해부터 도로명 주소가 전면 시행됐지만 아직도 주요 웹사이트 10곳 중 3곳은 옛 지번 주소를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안전행정부는 지난달 방문자 수 상위 5041곳의 회원 주소 처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28.9%인 1460곳이 도로명 주소를 적용하지 않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 288곳은 잘못된 표기 방식을 쓰고 있었다. 나머지 3293곳은 도로명 주소를 적용하고 있거나 주소 정보를 아예 요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안행부는 지번 주소만 사용 중인 웹사이트 운영 업체들을 대상으로 애로점을 발굴, 해소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조한진기자 hjc@

방송통신대 도서 등 기증받아

한국방송통신대는 30일 오전 11시 30분 방송대 본관 6층 총장실에서 대학 역사 기록물, 도서 등 4231점을 기증한 이완교 전 총장과 윤용식 전 도서관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한다.

기증된 자료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송대 졸업식 축사(1999년) 등 대학 역사와 관련된 기록물 679점과 교육 서적 123권, 문학 인문학 서적 3529권이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 본부 /방송대 제공

서울여대 교수 논문 PNAS 게재

서울여대는 피터 팔루카이티스(사진) 원예생명조경학과 교수 연구팀의 논문이 최근 자연과학 분야 5대 학술지인 미국국립과학원회보(PNAS)에 게재됐다고 29일 밝혔다.

연구팀은 '식물바이러스 벡터를 이용한 식물병원성 곰팡이 유전자의 기능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식물만 감염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던 식물바이러스가 곰팡이도 감염 및 증식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규명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 성과를 곰팡이에서 효소의 기능은 향상시키고 독소 유전자 등은 발현을 억제하는 방법으로 식품 가공 및 제조 과정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영세 식품업체만 골라 등친 블랙컨슈머

음식에 벌레·이물질 고의로 넣어… 5개월간 309곳서 3500만원 챙겨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식품에 벌레나 이물질을 일부러 넣고 업체를 협박해 돈을 뜯어 낸 혐의로 2명을 구속했다. 사진은 경찰이 압수한 증거물. /연합뉴스

영세 식품업체만 골라 음식에 벌레나 이물질을 고의로 넣고 업체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돈을 뜯은 악성소비자(블랙컨슈머) 2명이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9일 영세 식품업체를 협박해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변모(35)씨와 동거녀 최모(46)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올해 3월 4일 부산시 북구의 한 대형 할인점에서 2300원짜리 김치를 구입해 일부러 벌레를 집어넣은 뒤 피해를 입었다며 생산업체에 보상을 요구해 20만원을 받았다.

특히 이들은 소비자 항의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능력이 없는 영세 업체만 상대로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

변씨 등이 이런 수법으로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309곳의 업체를 협박해 35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할인점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변씨는 판매한 식품에 이물질이 들어 있다는 소비자의 항의가 제기되면 생산업체가 불이익을 우려해 쉽게 보상에 응한다는 점을 악용했다.

이들은 집 주변에서 각종 벌레와 플라스틱 등 이물질을 수집해 집 안에 보관하며 범행을 저질렀다. 아무 벌레나 음식물에 넣지 않고 단 음식에는 개미, 김자반에는 돌가루를 넣는 등의 수법을 사용했다.

이들이 5개월간 벌여 온 범행은 이달 초 최씨가 변씨에게 협박한 업체로부터 돈을 받았는지 묻는 내용의 SNS 메시지를 피해업체 직원에게 잘못 보내면서 꼬리가 잡혔다.

/마정우기자 cyclone@metroseoul.co.kr

"얼굴 백반증은 장애" 첫 판결

피부에 흰색 반점이 생기는 질환인 백반증이 얼굴에 발병할 경우 장애로 인정하고 국가에서 지원해줘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던 한모(71)씨는 자외선 때문에 백반증이 악화될 수 있다는 말에 19년을 일한 직장을 그만뒀다.

한씨는 2006년 보령시에서 안면부 3급 장애인으로 등록돼 국가 지원을 받았으나 2011년 심사절차가 강화되며 등록이 취소되자 이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한씨는 얼굴에 나타난 광범위한 백반증으로 오랫동안 일상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안면장애인'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밝혔다.

재판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보면 안면장애인은 얼굴의 변형이나 기형으로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이라며 "백반증도 안면부위의 변형으로 볼 수 있고 '장애등급판정기준' 상의 색소침착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다혜기자

계곡에서 레프팅 즐겨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29일 강원 인제군 내린천 계곡에는 래프팅을 즐기는 피서 행렬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성북생명보험어린이집 조감도.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제공

짝사랑한 선생님 살해한 제자 징역 35년

유기징역 사상 최고형… 결혼 소식에 살해

고교시절부터 짝사랑한 선생님을 수년간 스토킹하고 잔인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이 징역 3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법원은 고교 상담교사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유모(22)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유기징역으로 35년형이 선고된 것은 처음이다.

재판부는 또 위치추적장치 20년 부착과 성폭력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간호학도로 해부학을 배운 유씨가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해 A씨를 잔혹하게 살해했고, 살해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이메일도 400여 차례나 보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유씨 변호인은 그가 자폐증의 일종인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충동적 범행으로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교 재학시절인 2009년부터 A씨를 짝사랑한 유씨는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하다 지난해 12월 결혼소식을 듣고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윤다혜기자 ydh@

성북생명보험어린이집 착공식

정릉동에 9호점 건립

삼성생명·교보생명·한화생명 등 18개 생명보험사들이 공동으로 기금을 출연해 설립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29일 성북구 김영배 구청장, 유승희 국회의원 및 재단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릉동에 구립 성북생명보험어린이집 건립을 위한 착공식을 개최했다.

재단이 건립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인 성북생명보험어린이집(9호점)은 영유아 79명이 이용할 수 있는 지하1층에서 지상3층의 539.37㎡ 규모로 내년 초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릉동은 주택개발사업이 활발히 추진된 지역으로 보육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성북구는 국공립어린이집 건립을 위해 지난해 생보재단의 국공립어린이집 건립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건립사업을 위한 첫 삽을 뜨게 됐다.

생보재단은 2012년부터 자치단체에서 제공한 토지에 국공립어린이집을 건립하고 자치단체에 기부한 후 다시 위탁운영을 맡는 민·관 협력의 국공립어린이집 건립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고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건립할 계획이다. /윤다혜기자

약학정보원 전 원장 기소

7억여건 처방전 정보 불법수집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9일 약학정보원 전 원장 김모(50)씨 등 3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 등은 2011년 1월부터 3년여 동안 약학정보원이 관리하는 전국 9000여 개의 약국 전산망에 처방전 정보를 전송받을 수 있는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7억4730만여건의 처방전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한 다국적 의료정보업체 이사인 허모씨로부터 처방전 정보 등을 몽지해 제 공해 [illegible]라는 제의를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허씨의 경우 넘겨받은 개인정보가 식별이 어렵게 암호화 돼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없었다며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약학정보원이 처방전에 담긴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해 다국적기업으로 무단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약학정보원을 압수수색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윤다혜기자

‘놀이터 포탄’ 가자 공방 재개

이스라엘 “장기전 대비해야” · 국제사회 중재 노력 이어져

잠시 소강상태였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공방이 28일(현지시간) 재개됐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날 가자지구 북부 난민촌의 공원 놀이터에 포탄이 떨어져 어린이 9명 등 10명이 숨졌다.

주민들과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소행이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로켓탄을 오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자에서 규모가 가장 큰 시파병원 주변에도 폭발이 있었다. 사망자는 없었지만 상당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다.

하마스의 가자지구 지도자인 이스마일 하니예의 자택도 29일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았다. 공습 당시 집안에 사람이 없어 사상자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하니예는 올해 6월초 통합정부가 출범할 때까지 가자지구 총리를 지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땅굴을 통해 이스라엘에 잠입한 하마스 대원들을 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판 땅굴을 파괴하는 것을 이번 공격의 목표로 삼고 있다.

3주 넘게 이어진 공방으로 팔레스타인 사망자는 1085명으로 늘었다. 이스라엘에서는 군인 52명과 민간인 3명 등 55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TV 연설을 통해 “장기전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하마스의 땅굴이 모두 파괴될 때까지 우리 군은 가자지구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하마스의 무장 해제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전 재개로 휴전 성사가 불투명해진 가운데 국제사회의 중재 노력은 이어지고 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일시적이지만 인도적인 차원에서 정전이 이뤄진 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양측과 협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조건 없는 정전 등 촉구한 안전보장이사회의 의장 성명을 수용하라고 압박했다.

/조선미기자 seonmi@metroseoul.co.kr

이스라엘은 테러리스트 29일(현지시간)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반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공습을 규탄하는 시위가 벌어진 가운데 어린이 시위대가 ‘이스라엘은 테러리스트’라는 문구가 쓰여진 손팻말을 들고 있다. /AFP 연합뉴스

「大哥大」仍貴

‘벽돌폰’ 기억 하시나요?

metro HongKong

휴대전화 역사 한눈에

28일 홍콩 피어모니아센터에서 두툼한 ‘벽돌폰’의 추억을 돌이보는 ‘그 시절 휴대전화 회고전’이 개막했다.

이번에 전시된 물건은 휴대전화 수집가 4명이 소장하고 있던 것이다. 일명 벽돌폰으로 불리던 모토로라의 다이나텍 등 다양한 초창기 휴대전화 600여 대가 나왔다.

현재 골동품이 돼버린 초창기 휴대전화는 당시보다 높은 가격에 팔리고 있다.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다이나텍은 2만~3만 홍콩달러(약 260만원~400만원)에 판매되고 있으며, 3000 홍콩달러(약 40만 원)였던 ‘에릭슨 R250D 프로’는 1만3000 홍콩달러(약 170만원)로 4배 높은 가격에 팔린다.

휴대전화 수집가인 단웨이에는 전시회를 위해 400대의 진귀한 모델을 제공했다. 단웨이에는 1995년 6000홍콩달러를 주고 첫 휴대전화를 산 뒤 수집을 시작, 지금까지 이 취미에 수십만 홍콩달러를 투자했다. 일본, 태국 등 다른 나라에 가서 희귀한 모델을 구해온 적도 있다.

단웨이에는 “요새 스마트폰은 외관이 비슷하지만 예전 휴대전화는 디자인이 다채로웠다. 스마트폰은 컴퓨터 역할을 하지만 옛날 전화기는 통화 기능이 전부였다”며 “관람객들이 전시회를 통해 휴대전화 변천사와 발전 과정을 살펴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전시회는 다음달 31까지 열린다.

/정리=조선미기자

에볼라보다 무서운 ‘의사 바이러스’

기니 등 서아프리카, 감염 우려 외부 의료진 접근 차단

서아프리카에 에볼라 바이러스(사진)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진이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 주민들이 “의사가 병을 옮긴다”며 외부 의료진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기니의 시골 마을 청년들은 “국경없는 의사회 사람들이 지나가면 병이 돈다”며 큰 칼과 새총을 들고 서양 의사들을 막아 섰다.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서아프리카 3개국(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에서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은 약 1200명이다. 이 가운데 660여 명은 사망했다. 전체 감염자 중 100명은 의료진이며 절반 가량이 숨졌다. 이 때문에 현지 주민들이 의료진의 도움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국경없는 의사회의 기니 지역 담당자는 “우리가 신뢰를 얻지 못하는 매우 드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국경없는 의사회는 이번달 기니의 12개 지역을 ‘적색’으로 분류했다. 적색 지역은 에볼라가 발병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안전 문제 때문에 접근할 수 없는 곳이다.

이런 가운데 기니의 일부 지역에서는 의사보다 주술사가 마을 주민들에게 신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에라리온 국경 인근 마을에서는 에볼라 환자가 무자격 간호사에게 해열 주사만 맞고 귀가한 사례도 확인됐다. 각국 정부가 나서 의료진의 진입을 돕고 있지만 주민들의 ‘의사 바이러스’ 공포는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다.

/조선미기자

market index <28일>

코스피	코스닥
2061.97 (+12.16)	541.82 (-11.16)
금리	**환율**
2.52 (+0.01)	1024.20 (-1.80)

뉴스&뉴스

방수팩 준비하세요 29일 서울 홈플러스 영등포점에서 고객들이 휴대용 방수팩을 사용해 보고 있다. 홈플러스는 다음 달 31일까지 대용도 휴대용 방수팩을 7900원에, 방수 기저귀로 불리는 '하기스 물놀이팬티'(3개입)를 5970원에 판매한다. /홈플러스 제공

직장인 46% "스마트폰 중독"

직장인 2명 중 1명은 스마트폰 중독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인크루트는 직장인 506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이용 및 중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응답자의 46.3%는 '스마트폰 중독이 심하다'고 답했으며 '스마트폰 없이도 생활이 가능하다'고 답한 직장인은 7.1%에 그쳤다.

과다한 스마트폰 사용으로 신체적 통증을 호소하는 직장인도 늘어났다.

응답자의 82.2%는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신체 기능 저하를 겪고 있다고 답했다. 가장 많은 증상은 '시력저하'(24.0%)였다. 이어 '목이 뻐근한 거북목 증상'(21.9%), '손목 또는 손에 이픈 증상'(18.3%), '불면증 증상'(15.3%) 등이 거론됐다. /황충희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XX스 돈트2가
TEL. 02)721-9800, FAX 02)730-1651
발행·인쇄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혁
편집국장 조인호
광고문의 02)721-9858 3
독자센터 02)721-9861
2005년 1월 31일 등록 서울 가00256

은행 갈때 '의리'… 최대 4.3% 금리

친구와 함께 상품 가입 땐 우대금리 '봇물'

은행에 들어선 다섯 남자들이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의리"를 외친다.

한 저축은행이 내놓은 정기적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다. 이들은 '의리'를 보이고 최대 4.3% 금리도 제공 받는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은행권에서는 친구와 함께 가입하거나 추천하면 환율과 금리 우대 등의 혜택을 주는 '의리' 상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앞서 다섯 남자들의 '의리'를 제안했던 OK저축은행은 가입기간 12개월, 1인 1계좌로 영업점에서만 가입 가능한 'OK끼리끼리 정기적금'을 내놨다. 이 적금은 기본금리 연 3.8%에 가족 또는 친구 3인 이상이 영업점에 내방해 동시에 상품 가입 시 우대금리 0.5%포인트가 더해져 최대 4.3%의 금리를 제공한다.

적금의 우대금리를 받기 위해서는 가족과 함께 내방 시 손을 잡고 상품에 가입해야 하며, 친구와 함께 내방 시에는 어깨동무 후 '의리'를 외쳐야 한다. 연인과 함께 내방 시에는 손과 팔을 이용해 하트를 표시해야한다는 조건이 따른다.

친구들 간에는 서로 우대 혜택을 받아 좋고 은행에서는 신규 고객을 확보할 수 있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셈이다.

환율 우대도 있다.

농협은행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환율우대 및 선물을 증정하는 '농협은행 외환의 의리! 으리으리한 혜택' 이벤트를 실시 중이다.

오는 9월 3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지인이 거래한 해외송금 거래 영수증을 지참한 고객이 해외송금을 할 경우 80%까지 환율 우대 혜택을 준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최근 유행하고 있는 '의리'를 컨셉으로 고객에 대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지원에서 이번 이벤트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스마트폰 뱅킹에서 친구 추천을 받거나 그룹을 만들면 우대 혜택을 주기도 한다. 휴대폰에 해당 앱을 설치한 후 이체실적 월 납입액이 같은 사람끼리 그룹을 만들어 멤버를 늘리면 우대 금리를 추가해주는 IBK기업은행의 'IBK흔들어적금'이 그 대표적인 상품 가운데 하나다.

이밖에도 국민은행은 스마트폰뱅킹 전용 상품인 'KB Smart 폰 예·적금'을 통해 추천번호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친구를 추천하면 추천인과 피추천인 모두에게 연 0.1%p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우리은행 역시 '우리꿈적금' 상품을 통해 친구를 가입시킬 경우 본인과 친구에게 연 0.1%p의 추가이율을 제공한다.

/백아란기자 grunt0208@metroseoul.co.kr

한국 빅맥가격 일본보다 비싸

반년만에 35 → 28위

환율 급변 탓에 우리나라 빅맥 가격이 일본보다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23일 환율(달러당 1023.75원)을 기준으로 한 빅맥지수 조사에서 한국 지수는 4.0으로 직전 조사지인 3.47보다 15.3%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한국에서 맥도날드 빅맥 햄버거 1개 가격(4100원)을 달러로 환산하면 4달러였다는 뜻이다.

이에따라 한국의 빅맥지수 순위는 올해 초 35위에서 7계단 상승한 28위다.

반면 아베노믹스가 본격화되기 이전인 지난해 1월만 해도 한국보다 한단계 위였던 일본 빅맥지수 순위는 35위로 밀려났다. 강력한 양적완화 정책으로 통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일본에서 한국보다 싼 3.64달러에 빅맥을 사 먹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의 빅맥 가격은 한국보다 비싼 4.8달러(20위)다.

빅맥가격이 가장 비싼 나라는 7.76달러인 노르웨이다. 이어 스위스(6.8), 베네수엘라(6.82), 스웨덴(5.95), 브라질(5.86)도 빅맥 가격이 비싼 나라에 꼽혔다.

반면 우크라이나(1.63), 인도(1.75), 남아프리카공화국(2.33), 이집트(2.37), 말레이시아(2.34) 등은 빅맥을 싸게 먹을 수 있는 나라에 이름을 올렸다. /제국회기자 kim.ua@

"제조업 3년 내 확 바꾼다" 민관 위원회 발족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에서 열린 '민관합동 제조혁신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위원회는 윤상직 장관과 박용만 상의 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정부·재계 관계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민관 합동 기구다. /연합뉴스

올 상반기 경상흑자 392억달러 '사상최대'

28개월째 흑자 행진

올해 상반기 한국의 경상수지가 392억 달러(약 40조2000억원)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6월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79억2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28개월째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2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6월 경상수지가 79억2000만 달러 흑자로 잠정 집계됐다.

경상수지는 지난 2012년 2월 24억1000만 달러 적자에서 3월 38억1000만 달러 흑자로 돌아서고 나서 28개월 연속으로 흑자를 냈다.

이번 경상수지 연속 흑자 기간은 역대 두 번째로 길다. 지금 적용하는 기준의 국제수지 통계가 편제된 1980년 이래 경상수지 최장 흑자 기간은 1980년대 중후반의 38개월(1986년 6월~1989년 7월)이다.

6월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14억2000만 달러(21.8%) 늘었으나 전달보다는 11억6000만 달러(12.8%) 줄었다.

상반기 누적 경상 흑자는 392억 달러로 상반기 기준으로 종전 최고치인 지난해의 297억 달러를 훌쩍 뛰어넘었다. 이는 한은의 상반기 전망치인 400억원을 소폭 밑도는 수치다. 한은은 올해 경상수지 흑자가 840억 달러일 것으로 보고 있다.

경상수지 가운데 상품 수출입에 따른 상품수지 흑자는 5월(91억3000만 달러)보다 줄어든 66억5000만 달러다. 상품수지 흑자는 사상 최고치였던 4월(106억5천만 달러) 이후 두 달 연속 감소했다.

6월 수출(502억8000만 달러)은 전월보다 4.0% 감소했다. 같은 기간 수입은 436억3000만 달러로 전월 대비 0.9% 증가했다. /김민지기자 minji@

LIG손보 무료견인 50㎞ 긴급출동 LIG손해보험은 휴가철을 맞아 긴급출동 시 차량 무상 견인 거리를 50㎞로 연장한 '뉴 딱카서비스A(50㎞)' 상품을 시판한다고 29일 밝혔다. /LIG손해보험 제공

은행권 기술담보대출 시동

기업銀 최초 기술평가팀 운영

"기술력이 담보되는 시대가 도래했다"

은행권이 기업의 기술력을 담보해 자금을 지원하는 기술금융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기술금융 활성화를 적극 주문한 가운데 은행권도 본격적으로 관련 상품을 개발, 판매하고 있다. 업계는 기술금융이 올해 하반기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선 신한은행은 기술금융 활성화에 과감한 출시표를 던졌다.

신한은행은 하반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을 통해 높은 기술신용등급을 받은 우량 기업을 대상으로 신용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특히 기술신용등급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우대금리나 한도 확대 등 혜택도 제공할 방침이다.

신한은행은 지난 2013년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3단계 전략 방안을 마련했다. 2014년 1단계-기술금융역량 기반 마련, 2015년 2단계-인프라 구축, 2016년 3단계-기술금융 가치 창출로 이어지는 기술금융 중장기 로드맵에 맞춰 체계적으로 전략을 실천에 옮기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7월 기술평가 전담부서인 산업기술평가팀을 신설해 총 10명의 전문인력을 배치했다. 기업여신심사부 내 23명의 기술전담심사역을 지정해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들에 전문적인 여신심사를 지원하고 있다.

NH농협은행도 하반기 중에 기술력 있는 농식품 기업을 대상으로 무보증 대출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TCB의 기술평가 정보를 바탕으로 담보·보증 없이 대출을 해주는 방식이다.

앞서 NH농협은행 서울영업본부는 지난 25일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해 출연금 7억9600만원을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전달했다. 이 출연금은 담보력이 부족한 서울 소재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사용된다. 이번 출연으로 농협은행 서울영업본부의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총액은 113억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기업은행은 올 들어 최근까지 특허 등 IP를 담보로 자금을 지원하는 IP사업화자금대출을 통해 19개 기업에 127억원을 지원했다. 지난 5월 초까지 7개 기업에 50억원을 지원한 것을 고려하면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지난해 7월 기술평가 전담조직을 신설한 기업은행은 올해 부품·소재산업, 중소벤처기업, R&D기업 등 신산업분야에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에 총 16조40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향상되면 대출 한도나 금리 등에서 혜택을 주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특히 등 지적재산권을 담보로 하는 IP대출도 확대된다. 우리은행은 이르면 8월 500억원 한도로 IP대출을 선보일 계획이다.

/김민지기자 minji@metroseoul.co.kr

2분기 서울 전월세전환율 7.3%

단독주택 가장 높아

서울시는 올 2분기 시내 반전세(보증부 월세) 주택의 평균 전월세전환율이 연 7.3%로 지난 1분기(7.7%)보다 소폭 하락했다고 29일 밝혔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 계약이 끝나고 재계약하는 경우 전세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하는 상한선은 연 10%다.

구별 전월세전환율은 중구가 8.6%로 가장 높았고, 강남구가 6.5%로 가장 낮았다. 권역별로는 도심권(종로·용산·중구)이 8.1%, 동남권(서초·송파·강남·강동)이 6.7%를 나타냈다.

또 모든 권역에서 단독·다가구주택, 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순으로 전월세전환율이 높았다.

권역별 주택유형으로 살펴보면 도심권 단독·다가구주택의 전월세전환율이 8.5%로 최고를 기록했고, 동남권 아파트가 6.2%로 최저를 기록했다.

전세보증금별로는 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의 평균 전월세전환율이 8.3%로 1억원 이상 주택보다 약 2%포인트 높았다. 더 적은 전세보증금을 주고 사는 세입자일수록 월세로 전환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금액으로 전환하는 셈이다.

서울시는 전월세전환율 공개 1년차를 맞이 지난 1년간 평균 전월세전환율도 공개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평균 전월세전환율은 7.3%이며, 전세에서 반전세로 전환한 사례는 모두 1만9977건이었다. 이 기간 월세 거래는 월평균 1만7000여건 수준이었다.

권역별로는 서남권 5581건, 동북권 5286건, 동남권 4931건, 서북권 2818건, 도심권 1281건으로 서남권과 동북권에서 월세 전환이 가장 빈번했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전월세전환율 공개는 시장을 잘 몰라 자칫 과도한 비용을 물고 월세 계약하는 것을 방지하고 향후 재계약 때도 적정 수준을 참고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며 "더 세분화된 지표를 계속 공개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선화기자 ssun@metroseoul.co.kr

숙취해소 맡겨주세요 29일 서울 청계천로 시그니처타워 앞에서 열린 레디큐 얼음 칵테일 시음행사에서 모델들이 제품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한독에서 출시한 숙취해소제 레디큐는 과일 주스처럼 달콤한 맛이 특징이다. /연합뉴스

우리銀, 원·위안 선물환 직거래

우리은행은 지난 28일 영국 바클레이즈 은행과 '원-위안 선물환 직거래'를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체결된 선물환 거래는 1개월 뒤 바클레이즈 은행으로부터 원화 약 51억원과 3100만 위안(선물환율 위안당 165.70원)을 바꾸는 조건으로 위안화를 살 때 원화로 직접 거래하는 계약으로는 국내 최초다.

선물환 거래란 미래시점에 특정 통화를 사거나 팔 것을 약속하는 거래로 국내에서는 원-달러 선물환 거래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이번 원-위안 선물환 직거래를 통해 앞으로 달러를 경유하지 않아도 돼 기업 입장에서는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박제완기자 [illegible]

대주주 배당금 20%대 분리과세

3년간 한시적 적용 추진

기업의 대주주들이 자신이 받는 배당금에 분리과세를 선택할 경우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20%대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소액주주들에게는 현행 14%인 배당세율을 5~9%로 낮춰주고, 기업의 과도한 사내 유보금에 대해 10%의 기업소득환류세를 걷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29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기업소득을 가계소득으로 환류시켜 가계소득을 늘릴 수 있는 3대 패키지 세제 중 핵심인 배당소득 증대 세제와 기업소득 환류 세제 등을 이런 방향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에서는 기업의 배당률을 결정하는 대주주가 의사 결정에 나설 동인을 제공하기 위해 대주주의 배당금에 대해 20%대의 단일 분리과세 세율을 새로 설정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소액주주에 설정된 배당세율인 14%보다는 높고 금융소득종합과세상의 최고세율인 38%보다는 낮은 수준을 의미한다.

또 현재 발행주식총액의 1% 미만이거나 1억원 미만의 금액을 보유한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배당 세율을 현행 14%에서 5~9%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고배당으로 판단될 만한 일정 수준 이상의 배당률을 제시하는 기업에 대해서만 배당소득 증대 세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기업소득 환류세는 10~15% 수준의 세율을 검토 중이나 현재는 10%가 유력시되고 있다.

기업소득 환류세는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투자가 적은 업종에는 당기 이익에서 투자액과 임금증가액, 배당액을 제외한 세금 부과 기준선을 20~30%로, 투자가 많은 기업에는 60~70%로 설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이런 세율을 적용하면 지난 정부의 법인세 인하율인 3%포인트 이내에서 추가 세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김문호기자 [illegible]

이통사, 영업정지 효과?

마케팅비 감소로 2분기 실적 호전 예상

이동통신 3사가 올해 2분기 실적에서 지난 3월부터 5월 이뤄진 45일 간의 영업정지 효과를 톡톡히 볼 전망이다.

이통3사 중 가장 먼저 2분기 실적을 발표한 KT는 2분기 매출액 5조8955억원, 영업손실 8130억원, 당기순손실 7572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했지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적자전환했다.

KT는 이와 관련, 2분기 명예퇴직자 8300여명의 발생으로 약 1조원 규모의 명퇴 비용이 일시 지급되면서 영업손실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명퇴 비용을 제외하면 2분기 미래창조과학부의 45일 순차 영업정지로 인한 마케팅 비용 절감으로 약 2000억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영업이익 수준은 전분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김인회 KT 최고재무책임자(CFO) 전무는 "2분기 영업정지와 시장이 비교적 안정화된 상황에서 30만명의 무선가입자가 순증하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KT의 이 같은 실적은 증권사들의 실적 전망치 평균(컨센서스)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취합한 증권사들의 2분기 실적 전망치 평균에 따르면 KT의 매출액은 5조6853억원, 영업손실은 8720억원, 당기순손실 9030억원이었다.

증권사들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2분기 실적 역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SK텔레콤의 2분기 매출액은 4조3518억원, 영업이익 5906억원, 당기순이익 5066억원으로 전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51%, 6.71%, 8.33% 증가한 규모다.

LG유플러스 역시 2분기 매출액 2조8327억원, 영업이익 1476억원, 당기순이익 779억원으로 예상했다. 작년 동기 대비로 보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2.51%, 1.92%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으나 당기순이익은 4.3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처럼 이통3사의 2분기 호실적을 예상한 데는 영업정지로 인한 보조금 경쟁이 사라지면서 마케팅 비용이 감소됐을 것이란 분석 때문이다.

성준원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1분기의 극심했던 마케팅 경쟁 이후 영업정지가 진행되면서 마케팅 비용 절감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다"면서 "다만 영업정지 이후 5월 중순부터 6월 중순까지의 예상치 못했던 경쟁 때문에 비용이 다소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성 연구원은 이어 "10월부터는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되면서 상당 기간 마케팅 경쟁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만큼 향후 1년간은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105형 곡면 울트라HD TV LG전자가 30일부터 '105형 곡면 울트라HD TV'를 국내 시장에 선보인다. 이 제품은 풀HD 해상도의 5배가 넘는 1100만화소(5120*2160)에 IPS곡면 패널을 사용한 제품이며 출고가는 1억 2000만원이다. /LG전자 제공

삼성 '셰프컬렉션'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삼성전자가 29일 수퍼 프리미엄 냉장고 '셰프컬렉션'의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신제품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제공

로케트전기 역삼동 사옥, 경매로 나온다

건전지로 유명한 로케트전기 사옥이 경매에 부쳐진다.

부동산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은 최근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역삼동 로케트전기의 사옥이 지난 6월 경매 신청 됐다고 29일 밝혔다.

채권자인 삼성상호저축은행이 빌려준 31억4150만원을 회수하기 위해 경매를 신청했으며 6월 10일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또 산업은행에서도 채권액 36억원을 받기 위해 6월 25일 경매 신청해 중복경매 된 물건이다.

임차인이 설정해 놓은 전세권 4건 총 11억3927만원을 포함해 등기부상의 채권총액은 314억2300여만원이다. 국민은행에서 설정해 놓은 저당권과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서울보증보험,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의 가압류가 포함돼 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의 로케트빌딩은 지하 4층~지상 9층, 토지면적 1050㎡, 건물면적 7612㎡ 규모다. 지난 1997년 준공됐으며 현재 시세는 230억~260억원이다. 현장조사 및 감정평가 등의 과정을 거친 후 입찰에 부쳐질 전망이다.

강은 지지옥션 팀장은 "로케트빌딩은 이해관계인이 많고 중복 경매가 신청 돼 일반적인 경매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며 "9월이 배당종기일이라 연말쯤 첫 경매일이 잡힐 수 있지만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선호기자 [illegible]

통신상품, 뭉치면 싸진다

SKT·KT 결합상품 인기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란 의미의 '단결신사'가 통신업계에서는 '뭉치면 싸지고 흩어지면 비싸진다'란 의미로 통용되고 있다. 이동통신사가 공개한 결합 상품을 살펴보자.

2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 5월 가족간 무선결합 요금할인 프로그램인 '착한 가족할인'을 선보였다. 착한 가족할인은 SK텔레콤 신규, 기기변경, 약정 만료 후 재약정 고객이 SK텔레콤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다른 가족과 회선을 결합하면 가입 요금제와 결합 회선 수에 따라 1인당 월 최대 1만원씩 24개월간 할인해주는 결합 할인 프로그램이다. SK텔레콤은 현재 50만명이 월정액 요금 할인을 받고 있으며 24개월간 할인받는 평균 요금은 9만6000원이라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가입 두 달 만에 가입 고객 수 100만명을 돌파했다.

KT는 소상공인 전용 통신 결제 패키지 상품인 '올레 SOHO 성공팩'을 최근 출시했다. 올레 SOHO 성공팩은 전화, 초고속인터넷, 카드결제기(VAN)로 구성된 기본 팩(월 2만원)과 TV가 포함된 TV플러스팩(월 2만6000원)으로 구성됐다. 또한 업종과 매장 환경에 따라 ▲KT뮤직의 매장음악 서비스 ▲고화질 HD급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폐쇄회로(CC)TV 서비스와 부가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선택할 수 있다.

KT에 따르면 각 상품을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것과 비교해 40% 가량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사후 서비스도 한번에 받을 수 있어 소상공인과 예비 창업자들에게 유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승희기자 [illegible]

넷마블 'CJ넷마블'로 독립 출범

권영식 대표이사 선임

CJ E&M 게임사업부문 넷마블이 8월1일 독립 법인 'CJ넷마블'로 출범한다.

29일 넷마블은 이같이 밝히고 최근 건강상의 사유로 사의를 밝힌 조영기 대표에 이어 권영식(사진) CJ 게임즈 대표를 독립법인의 대표이사로 선임한다고 덧붙였다.

풍부한 게임사업 역량을 인정받아 대표직에 오른 권 대표는 2002년부터 2010년까지 CJ E&M 넷마블의 퍼블리싱사업 본부장을 역임했고 지난 1월부터는 CJ 게임즈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넷마블은 10월 중 게임개발지주회사인 CJ 게임즈와 통합해 유통플랫폼과 게임사 간의 시너지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새로운 글로벌 게임통합 법인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통합 법인의 명칭은 추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넷마블(옛 CJ인터넷)은 2011년 3월 온미디어, 씨제이미디어, 씨제이인터넷, 엠넷미디어, 씨제이엔터테인먼트가 합병한 CJ E&M의 게임사업부문으로 편입된 바 있다.

/박성훈기자 [illegible]

삼성물산 '래미안 용산' 이미지

래미안 용산 모델하우스를 찾은 방문객들이 모형도를 살펴보고 있다.

삼성물산 '래미안 용산' 랜드마크로 우뚝

'강북판 타워팰리스'로 주목

중대형아파트 악재에도 불구하고 이달 조전 주택형 분양 마감을 기록한 '래미안 용산'이 강북판 타워팰리스로서 용산일대 랜드마크 자리를 넘볼 전망이다.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342번지 일대 용산역전면3구역을 재개발한 복합주거단지로 지상 40층 초고층의 2개 동 트윈타워로 구성됐다.

◆차별화된 설계, 고품격 오피스텔

이 가운데 오피스텔 '래미안 용산 SI'는 지상 5층~19층까지 배치되며 782실 중 597실이 일반분양 몫이다. 삼성물산이 래미안 브랜드로는 첫 선을 보인 고급 오피스텔로, 전용면적 42~84㎡로 구성됐다.

'래미안 용산 SI'는 오피스텔의 편리성과 아파트의 효율성을 동시에 갖춘 '래미안 용산'의 신개념 중소형 주거공간으로 개발됐다.

우선 보통 오피스텔이 복도를 중심으로 각 실을 마주보게 설계하는 것과 달리 '래미안 용산 SI'는 중앙부를 중심으로 한쪽으로만 배치됐다. 이 경우 집을 나서거나 환기 등을 위해 문을 열어두더라도 입주민 간 시선 충돌은 간섭 받을 여지가 적다.

또 외부 창호는 52㎜ 로이삼중유리와 24㎜ 로이복층유리를 사용했다. 일반유리에 비해 차단 효과가 높아 도심·이웃간 소음이 최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오피스텔 입주자와 방문객들의 동선도 구분됐다. 오피스텔 방문객들은 1층 로비에서 방문객 등록을 마쳐야 각 호실로 이동할 수 있다. 자동 가져온 경우에는 방문객용 엘리베이터 내 인터폰으로 인증을 받아야만 방문이 허락된다.

◆아파트 고층 배치, 조망권 극대화

아파트는 전용면적 135~243㎡, 전체 195가구(펜트하우스 5가구 포함) 규모다. 이 중 165가구가 일반분양됐다.

2~3면 개방형인 파노라마식 거실 설계를 적용해 자연 환기는 물론, 조망을 극대화했다. 특히 21~40층 고층에 배치돼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한강, 용산공원, 남산 조망이 가능하다.

지상 20층에 피트니스센터 등의 커뮤니티 시설을 배치해 보통 지하에 만들어지는 일반 아파트와는 달리 쾌적한 개방감을 느끼도록 했다. 아울러 20층에는 동과 동을 연결하는 독특한 외관의 스카이브릿지를 만들어 이동 편의성과 주민들의 휴게공간을 동시에 확보했다.

스카이브릿지를 활용해, 일반적으로 저층이나 최상층에 만들어지는 테라스하우스를 19층과 21층 중간층에 조성했다. 저층과는 달리 남다른 조망권을 확보하게 될 전망이다.

특히 타입에 따라 최대 126.16㎡의 넓은 공간도 제공된다. 일반분양 기준 오피스텔은 19층의 T(56㎡), M(74㎡), O(84㎡) 등 3개 타입 10실에 아파트는 21층의 135㎡T(1가구), 161㎡T(3가구) 등 4가구에 적용된다.

래미안 용산의 모델하우스는 서울 송파구 문정동 래미안갤러리 5층에 마련됐으며, 입주는 2017년 2월 예정이다.

/박선옥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중소기업상생관 '드림플라자' 오픈 29일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에 중소기업상생관 '드림플라자(Dream Plaza)'가 오픈한 가운데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이원준 롯데백화점 대표이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드림플라자 매장을 둘러보고 있다. /롯데백화점 제공

8월 대형 주택업체 아파트 8541가구 분양

오는 8월 대형 주택업체가 분양하는 전국 아파트 물량이 8000여 가구에 그칠 전망이다.

한국주택협회는 29일 회원사의 8월 분양 계획을 조사한 결과 8개 회사가 8개 사업장에서 8541가구를 공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1만1637가구)보다 27% 줄어든 물량이고, 지난달(6104가구)과 비교하면 40% 증가한 것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257가구로 가장 많고 경기(2890가구), 경남(1458가구), 충남(936가구) 순이다.

사업 유형별로는 재개발·재건축 물량 4715가구, 단순도급 2230가구, 자체분양 1596가구로 집계됐다.

/김두탁기자 kimdt@

지식산업센터도 초대형 고급화 바람

건설사들이 각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 공급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금까지 지역을 대표하는 건물은 대형 빌딩이나 아파트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대형건설사까지 사업 다각화의 일환으로 지식산업센터 시장에 출사표를 던지면서 얘기가 달라졌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초대형 규모에 고급화를 전면에 내세운 지식산업센터가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종전 아파트형공장의 무거운 이미지를 벗고 고급 오피스 못지않은 시설을 적용하는 것이다.

특히 대형건설사를 중심으로 설계부터 조경, 커뮤니티시설까지 최신 설계를 적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고급스러움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입주사 입장에서도 나쁠 게 없다. 이들 지식산업센터 대부분 역세권에 위치해 접근성이 좋을 뿐 아니라, 편의 시설까지 잘 갖추고 있어 편의성이 증대되기 때문이다.

실제, 현대엔지니어링이 서울 송파구 문정미래형 업무용지에서 분양 중인 '문정역 테라타워'는 초고속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을 비롯해 원격검침, 조명제어 등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줄 첨단 스마트 시스템이 적용됐다.

삼성중공업이 경기도 의왕시 포일2택지개발지구에서 선보인 '인덕원IT밸리'는 빌트인 시스템의 기숙사, 공용휴게실, 구내식당, 옥상정원, 강당 등을 갖춘 20만㎡ 규모의 대형 지식산업센터다. 원격검침시스템, 쓰레기 자동수거시스템 등의 첨단시설이 도입됐다.

현대건설이 서울 금천구 독산동 코카콜라 물류 부지에 공급한 '독산동 현대지식산업센터'는 지식산업센터 외 근린생활시설, 업무지원시설이 단지 내 포함됐다. 무역센터빌딩의 1.5배 규모를 자랑한다.

대우건설 역시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와 경기도 고양시 삼송지구에서 각각 '송도 스마트밸리'와 '삼송 테크노밸리'를 시공한다.

이 중 '송도 스마트밸리'는 연면적만 29만1134㎡로 수도권 최대 규모다. '삼송 테크노밸리' 역시 잠실주경기장 1.7배 크기로 지어진다. 테크타운, 미디어타운, 판매시설, 기숙사 등이 들어서는 지원시설 등을 포함해 3개 시설로 조성된다.

업계 관계자는 "아파트형공장에서 지식산업센터로 이름이 바뀌면서 척박했던 이미지가 많이 개선된 데다, 대형건설사까지 진출하면서 점점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라며 "다만 요즘 공급이 많이 늘고 있어 지역별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선옥기자

재계 "8월 경제, 이보다 나쁠 순 없다"

BSI '91.6' 6개월만에 최저치… 내수부진 등 원인
확장적 경제정책, 규제개혁 통해 경제활력 높여야

재계는 8월 국내 경제전망을 '최악의 상황'으로 예상했다. 새 경제팀의 경기부양정책에도 내수경기 부진과 소비심리 위축이 여전할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조사 결과, 8월 종합경기 전망치는 '91.6'으로 6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경제성장률 둔화, 내수경기 부진과 소비심리 위축, 주요 기업의 2분기 실적부진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2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대비 0.6%로 7분기만에 최저치다(2012년 3분기 0.4→2012년 4분기 0.6→2013년 1분기 0.6→2013년 2분기 1.0→2013년 3분기 1.1→2013년 4분기 0.9→2014년 1분기 0.9→2014년 2분기 0.6 이었다).

또 내수경기도 지난 2분기는 민간소비 전기 대비 0.3% 감소로 11분기만의 최저치였다. 7월 소비자동향지수도 15개월내 최저치를 보였다.

특히 예상보다 기업실적 부진폭이 컸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의 2분기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동기 대비 24.5%, 13.3% 감소했다.

부문별로 보면 ▲내수(91.0) ▲수출(93.7) ▲투자(97.9) ▲자금사정(96.4) ▲재고(102.9) ▲고용(98.5) ▲채산성(93.3) 등 모든 부분에서 부정적으로 전망됐다. 재고는 100 이상일 경우 부정적인 답변(재고과잉)을 의미한다.

기업경기실사지수 7월 실적치는 90.8을 기록해 4개월 연속 기준선 100을 하회했다. 부문별로 ▲내수(95.4) ▲수출(94.5) ▲투자(97.7) ▲자금사정(96.9) ▲재고(104.4) ▲고용(96.6) ▲채산성(92.7) 등 모든 부분에서 부진했다.

업종별로 경공업(94.1)의 경우 섬유·의복과 가죽·신발(67.0), 펄프·종이와 가구(93.3)를 중심으로 전월보다 부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화학공업(88.0)은 자동차·트레일러 및 기타운송장비(80.0), 전자 및 통신장비(81.8) 등을 중심으로 부진하고, 비제조업(94.6)의 경우 컴퓨터프로그램과 정보서비스(81.8), 도·소매(91.7), 방송·통신업(92.3)을 중심으로 부진할 것으로 보인다.

김용욱 경제정책팀장은 "내수 부진과 소비심리 위축현상이 장기화돼 기업 체감경기도 나빠지고 있다"며 "과감한 규제개혁과 확장적 거시경제정책을 통해 경제활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kss@metroseoul.co.kr

삼성SDS, 주식발행한도 2억주로 늘려

임시주총서 의결… 상장 앞두고 대형 M&A 등 자금조달 대비

연내 상장을 추진하는 삼성SDS가 주식발행한도를 2억주로 늘리는 정관변경안을 의결했다. 또 우선주도 3600만주에서 5000만주로 늘리는 정관변경안도 통과돼 자금조달이 용이하게 됐다.

삼성SDS(대표 전동수)는 29일 오전 9시 서울 역삼동 삼성SDS 멀티캠퍼스에서 임시주총을 열고 ▲정관변경 ▲사외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설치 등 3개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정관변경에 따라 삼성SDS의 주식발행 한도는 현재 1억2000만주에서 2억주로 늘어난다. 그러나 유상증자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전동수 대표는 "당장 단기 자금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길게 본다면 대형 M&A도 가능하기 때문에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주식수를 늘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주식발행 한도의 71%가 주식으로 발행된 상황"이라며 "한도 확대가 당장 주식을 희석시켜 주식 가치를 떨어뜨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주총에서는 ▲박경호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문성우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 ▲박영렬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이재은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 등 4인이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이중 문성우 변호사, 박영렬 교수, 이재은 교수는 감사위원회 위원을 겸임한다.

삼성SDS는 사외이사의 경우 IT서비스 분야 전문가, 글로벌 시장 환경 및 전략 전문가, 회계 전문가,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및 법률 전문가 등 각계의 전문가를 선임했다고 설명했다.

전동수 사장은 "융·복합화하는 글로벌 IT산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사업확대로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고, 고부가 가치 창출이 가능한 솔루션과 서비스형 사업 비중을 확대할 것"이라며 "성장 잠재력이 큰 물류IT서비스, 클라우드, 모바일 서비스 등 신사업 분야를 지속 확대하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양세훈기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기업부담 2조3천억

재계 "시행시기 연기요청" – 정부 "대안 마련할 것"

내년부터 시행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따라 기업의 배출권 구입비용이 오는 2020년까지 2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아이엠투자증권은 29일 보고서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이 1톤당 1만원일 경우,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권 구입비용은 2020년까지 2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배출권 공급이 부족해 과징금을 낼 경우, 배출권 구입비용의 3배인 7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연도별 목표 배출량을 기준으로 업종·기업별 감축량을 배분하고 할당된 배출권을 거래토록 해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제도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0년 7억7600만톤으로 예상되며, 배출권 거래제에 따른 감축목표는 이 예상량의 30% 수준인 2억3300만톤이다.

산업별로 발전부문의 2020년 감축 목표량이 6450만톤으로 가장 많다. 이어 ▲운수·자가용 등 수송이 3420만톤 ▲디스플레이 2775만톤 ▲석기·전시 2455만톤 등이다.

보고서는 매출액 대비 배출권 구입비용 비중이 높은 회사로 한국전력·카프로·포스코·한국철강·세아베스틸·LG화학·SK하이닉스·LG디스플레이·삼성SDI 등을 꼽았다.

주익찬 아이엠투자증권 연구원은 "정부와 배출권 가격 안정화 예상 가준인 온실가스 1톤당 1만원은 북미와 유럽의 배출권 가격인 1톤당 7~20 달러와 비슷한 수준"이라며 "제도시행 시기를 연기할 가능성은 적지만 과징금액 조정 등 규제완화 가능성은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재계는 경제적인 부담을 고려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시기를 2020년 이후로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지만, 정부는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정부는 그러나 시행시기를 연기하는 대신 여러 대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최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와 관련 "국민 경제에 미치는 부담과 국제적 동향, 국제사회 약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른 시일 내에 대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kt금호렌터카, 휴대폰 충전기 무료 대여

종합 렌탈회사인 케이티렌탈(대표 표현명)의 렌터카 브랜드인 kt금호렌터카는 자량 대여고객에게 차량용 휴대폰 충전기와 타이어 인버터 제품을 무료로 대여해준다고 29일 밝혔다.

차량용 휴대폰 충전기는 kt금호렌터카 전국 11개 주요지점(강남·서울역·고속터미널·김포공항·인천공항·김해공항·부산역·동대구·울산공항·제주·대전역·광주공항)에서 사전 예약, 현장 요청을 통해 대여할 수 있다.

/정혁채기자 (smartE)

책 읽는 인재라면 환영합니다

이국명 기자의 알짜기업 탐방
비상교육

'독서경영' 실적도 쑥쑥 5년마다 한달간 안식휴가 기대 역할 호칭체계 신선

"사람을 공부합니다"

자기주도학습서 '완자', 온라인 교육사이트 '수박씨닷컴' 등으로 유명한 교육기업 비상교육이 내건 메인 슬로건이다. 창립 15주년이었던 지난해에는 양태회 대표가 직접 출연한 광고에서 '수현이는 공부합니다. 비상은 수현이를 공부합니다. 선우 어머님은 공부합니다. 비상은 선우 어머님을 공부합니다' 등의 메시지를 선보여 잔잔한 감동을 일으키기도 했다.

실제로 비상교육은 교육업계 내에서도 교육제도가 잘 갖춰져 있기로 유명하다. '무슨 교육이 이렇게 많은지'라며 불만을 토로하는 신입사원이 있을 정도다. 우선 신입사원으로 입사하면 '수제부 프레드'라는 책을 읽고 독후감을 써야 한다. 이 독후감은 팀과 회사 전체에 공유되고 토론 주제에도 오른다.

직원리뷰어가 매달 주제에 맞춰 선정한 책을 팀원들과 함께 읽고 토론하는 '도서공감'도 눈길을 끈다. 필요한 책은 회사에서 전부 구입해주며 결과 보고서를 그룹웨어에 올리기만 하면 된다. 이를 통해 팀원들이 같은 책을 읽으며 공동의 언어를 만들어간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다양한 독서모임 활동도 활발하다. 비상교육의 힘이 독서에서 나온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다.

비상교육 직원들이 자신들의 꿈을 적어놓는 '비전 게시판'

◆1년 120만원 교육 활동비

비상교육의 자랑거리는 이것만이 아니다. 모든 직원들은 1년에 120만원의 교육문화 활동비를 지원받는다. 꽃꽂이, 어학·공연 등 업무와 관련 없는 교육도 가능하며 리포트 한 장만 제출하면 된다.

장기근속자에 대한 대우도 특별하다. 5년마다 유급 2주, 무급 2주간의 안식휴가를 준다. 20만~50만원의 근속격려금도 받을 수 있다. 금연을 선언하면 특별 건강검진 혜택도 선물로 준다.

매달 마지막 금요일 점심시간을 2시간 동안 여유있게 쓸 수 있는 '빅 바런치', 각종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사내바자회 등도 주변 직장인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이 덕분에 비상교육은 노동부의 베스트 HRD(인적자원개발) 인증을 받기도 했다.

◆근속연수 7년 업계 최고

기업문화 역시 톡톡 튄다. 우선 부장·과장·대리와 같은 직급이 없다. 대신 CP(Creative Planner), IP(Innovative Planner), SP(Supportive Planner), VP(Vision Planner) 등 기대역할 중심의 호칭체계를 마련했다. 양 대표도 일반 팀원들처럼 CP로 불린다. 수직적인 상하관계가 아니라 원 형태의 동심원 구조를 통해 의사소통 속도를 높인다는 설명이다.

직원들에 대한 보상도 철저하다. 대졸초임은 남녀 구분없이 2900만원, 성과급은 물론 개인평가·팀평가·회사평가 보상금도 따로 지급한다. 최고 평가를 받으면 연말에 1500만원이 넘는 보너스를 챙기는 것이 가능하다. 덕분에 근속연수는 업계에서 가장 긴 7년을 자랑한다.

◆하반기 20여명 채용 예정

이같은 노력은 성과로도 나타나고 있다. 2010년 1000억원을 돌파한 비상교육의 매출은 지난해 1348억원으로 늘어났다. 영업이익은 190억원에 달했다. 2003년 60여명에 불과하던 직원도 800명을 훌쩍 넘어선 상태다. 올 상반기 41명을 신규 채용한 비상교육은 하반기에도 30여명을 새로 뽑을 예정이다.

자세한 채용일정과 인사지원은 비상교육 홈페이지(company.visang.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사진/손진영기자 son@

비상교육 20층 '휴담카페'에서 직원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인재풀 등록하면 유리

이런 인재를 원한다

"비상교육은 혁신과 파트너십의 은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새로운 방식이 있는지를 찾고, 수평적 조직체제로 실무자의 목소리가 최종 의사결정자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됩니다."

박병근(사진) 비상교육 HR전략부 총괄책임자는 교육업계에서 큰 꿈을 펼치길 원하는 많은 인재들이 지원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기업문화가 눈에 띈다

▶▶사장 전망 좋은 20층에는 '휴담카페' 등 직원휴게실이 있다. 대표이사실은 바로 아래인 19층에 있다. 수평적인 기업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 중 하나다. 남녀차별, 라인문화 등 소모적인 갈등없이 스스로의 전문성을 키울 수 있다는 점도 자랑거리다.

▶채용전형도 독특해 보인다

▶▶서류전형과 자체개발한 인성검사, 실무면접 등을 거친다. 실무면접에서는 전공과 유사한 과목의 문제를 풀어야 한다. 수학전공자라면 중·고등학교 수학문제를 일정점수 이상 맞춰야 합격할 수 있다.

▶합격 노하우가 있다면

▶▶면접에서 책을 많이 읽는지를 반드시 물어본다. 독서를 많이 하는 사람치고 업무역량이 떨어지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다. 원하는 직무의 채용공고가 없더라도 인재풀에 미리 등록해 놓는 것이 좋다. 직원추천제도 운영하기 때문에 사내 아는 사람을 통하거나 팀장들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다.

/이국명기자

기업 81% "스펙 안본다"

책임감 등 인성이 중요

상당수의 기업이 지원자들의 고스펙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29일 취업포털 사람인이 기업 226개사에 '지원자들의 보유 스펙에 대한 생각'을 조사한 결과, 25.7%가 '지원자의 보유 스펙이 요구하는 수준보다 높다'고 답했다.

요구수준보다 과하게 갖췄다고 판단되는 스펙으로는 '대학원 등 고학력'(62.1%, 복수응답)이 1위를 차지했다. 토익 등 어학점적(37.9%), '어학연수 등 해외경험'(31%), '외국어 회화능력'(20.7%), '직무 관련 자격증'(20.7%), '인턴 경험'(17.2%), '높은 학점'(12.1%), '봉사활동'(12.1%) 등이 뒤를 이었다.

채용과정에서 스펙을 중점적으로 보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81.3%가 '아니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는 '스펙만으로 검증 못하는 게 있어서'(49.7%, 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다. '인재상 부합 등 다른 기준이 중요해서'(37.3%), '고스펙자는 뽑아도 이탈 등 손해가 커서'(22.7%), '스펙의 변별력이 떨어져서'(17.8%), '어차피 스펙 외 요소로 당락이 결정되어서'(16.8%), '스펙은 취업을 위해서만 갖춘 것 같아서'(12.4%) 등도 많이 거론됐다.

스펙 대신 중요하게 평가하는 것으로는 '책임감, 원만함 등 인성적 요소'(71.9%, 복수응답)를 가장 많이 꼽았다. '직무 지식 또는 수행 능력'(49.7%), '입사의지 등 조직 관련 태도'(37.8%), '사교력, 포용력 등 사회성'(27%), '풍부한 지식과 경험 보유'(24.3%), '창의, 혁신적 사고력'(22.7%), '잠재력, 성장성'(21.1%) 등의 순이었다.

/이국명기자

ICT 창업에 도전하세요 ICT(정보통신기술) 분야 청년창업가, 벤처 CEO의 재도전을 응원하기 위한 '2014년 제4차 재도전 캠프'가 지난 26~27일 경기도 일산 현대블루비스타에서 열렸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하반기에도 4차례 캠프를 열 예정이다. /미래부 제공

알바로 등록금 벌려면 1024시간 일해야

대학 등록금을 아르바이트로 마련하려면 최소 1024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은 104개 직종의 평균 시급을 기준으로 대학 등록금 마련 기간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이 조사는 교통비와 식비 등 알바 급여를 한푼도 별도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가정이 전제됐다. 올해 4년제 종합 대학의 평균 등록금 액수는 660만9000원으로 한학기 등록금은 국립대 약 403만원, 서울 사립대는 약 734만원에 달한다. 수도권 사립대는 한학기 등록금이 780만원이었다.

평균 시급이 가장 낮았던 도서/DVD대여점(5342원)과 편의점(5344원)의 경우 1237시간을 일해야 대학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학교의 형태별로 국립대의 경우 755시간, 사립대는 1374시간이 소요됐다. 하루 네 시간씩 근무해도 휴일 없이 10개월 이상을 근무해야 얻을 수 있는 액수다.

/장윤희기자 unique@

변비환자 30%이상 증상 몰라

대한소화기기능성질환 운동학회, 국내 최초 변비 환자의 질환 인식 조사

국내 변비 환자들은 자신들이 변비 증상을 겪으면서도 변비인 것을 모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소화기기능성질환 운동학회 변비연구회는 최근 20세 이상 성인 6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내 변비 환자의 증상 인식 정도와 치료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회에 따르면 변비는 ▲배변 시 과도한 힘주기 ▲잔변감 ▲적은 배변 횟수 ▲딱딱한 변 ▲식상 항문 폐쇄감 ▲배변을 위한 추가 손동작 등의 증상을 보인다.

이런 증상의 경험 유무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과도한 힘주기(400명, 64.6%) ▲잔변감(392명, 64.2%) ▲적은 배변 횟수(363명, 58.9%) ▲딱딱한 변(359명, 58.9%) 등의 증상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많은 응답자가 이런 증상을 변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 중 159명(25.4%)만이 과도한 힘주기가 변비 증상이라고 답했다. 딱딱한 변을 변비 증상으로 꼽은 환자도 170명(27.2%)에 그쳤다. 또 적은 배변 횟수를 변비 증상으로 간주하는 사람도 3명 중 1명에 불과했으며 6가지 증상 모두 변비가 아니라고 답한 환자도 6.7%나 됐다.

이와 함께 환자들은 치료에 있어서도 소홀한 것으로 조사됐다.

6개월 이상 변비 증상을 겪었지만 아무런 치료도 하지 않은 환자가 320명으로 절반을 넘었고 치료를 받는 환자 중 207명(33.1%)은 민간요법이나 약국에서 판매하는 변비약에 의존하고 있었다. 게다가 병원을 방문해 치료를 받은 사람은 단 98명(15.1%)뿐이었다.

이태희 순천향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변비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들이 변비에 대해 정확히 아는 것이지만 대부분 환자가 변비의 증상을 오해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변비는 환자에 따라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고 방치하면 2차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어 병원을 방문해 올바른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유현희기자 hsyu@metroseoul.co.kr

더위 이기는 '건강기능식' 선택법

식약처 검증 등 확인

초 중복이 지나면서 본격적인 삼복더위가 시작됐다. 이 시기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 여러 보양식을 섭취하는데 최근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기운을 북돋우는 경우가 늘고 있다. 하지만 홍삼, 오메가3 등 다양한 건강기능식품 중에서 나에게 맞는 제품을 찾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원료 확인이 중요

여름철 건강을 위한 제품 선택에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원료의 기능성이다. 자외선에 노출된 피부를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한 기능과 더위에 지치고 무기력해진 체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피로 개소 기능 등이 필요한 것이다.

또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항산화 작용도 중요하다. 세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신호를 전달해 신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활성산소는 필요 이상으로 생성될 경우 세포막이나 유전자를 공격해 정상 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리고 각종 질병을 일으킨다.

이런 활성산소를 제어하는 것이 항산화 작용으로 이 역시 여름을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역할을 한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한 개별인정원료인지 확인해야 한다. 개별인정원료는 판매자가 원료와 관련된 자료를 식약처에 직접 제출해 검증을 받은 것으로 그만큼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된 셈이다.

이와 함께 제품 겉면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표기나 도안은 해당 제품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이며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홈페이지 자료실에 공개된 '제품 기능성 및 기능성 등급'도 놓쳐서는 안 될 항목이다.

/황재용기자

종합감기약 '테라플루' 국내 공급 재개

한국노바티스(대표 브라이언 글라드스텐)가 종합감기약 '테라플루'의 국내 공급을 재개한다.

테라플루는 2008년 국내에 처음으로 출시된 감기약으로 따뜻한 물에 제품을 타서 차(茶) 형태로 복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회사는 제품을 액상으로 복용하기 때문에 흡수가 빠르고 수분을 보충할 수 있으며 알약을 삼키기 어려운 환자들도 쉽게 섭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품은 '데이타임'과 '나이트 타임' 두 가지 타입으로 구성돼 있으며 약국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한편 회사는 테라플루의 생산공장다른 위해 본사의 해외 제조소를 미국에서 프랑스로 변경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신고) 변경 절차를 밟았으며 이 때문에 2012년 상반기 이후 제품의 국내 공급이 일시 중지된 바 있다.

/황재용기자

'당뇨병 교실' 오늘 개최

인제대 서울백병원(원장 최석구)이 30일 오후 1시30분부터 병원 대강당에서 '당뇨병 교실 1500회'를 기념한 특강을 연다.

▲당뇨병과 치매(김지영 신경과 교수) ▲당뇨인의 운동요법(정재은 영상분동사) 등의 강연을 하며 당뇨병 교실 회원인 안요직씨가 당뇨병 극복 투병담을 들려줄 예정이다.

한편 병원은 1983년 9월 14일 첫 당뇨병 교실을 시작해 매주 1회 당뇨병 환자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당뇨병 교실을 제공했다.

당뇨병과 비만의 악순환

혈당과 체중의 통합 관리로 해결해야

기고문

김성래 부천성모병원 내분비내과 교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비만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국내 비만 문제 해결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난해 국내 비만 인구는 남녀 각각 38.1%, 25.9%에 달한다. 더욱이 당뇨병과 같은 각종 성인병에 노출돼 있는 성인 남성 비만율은 1998년 25.1%에서 2010년 36.3%로 급증했다.

과체중을 비롯한 비만은 단순히 생활의 불편에 그치지 않고 당뇨병·심장병·고혈압 등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한다. 특히 당뇨병과 비만은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 체중이 늘어 지방세포가 늘어나면 인슐린 저항성이 유발되며 더 많은 인슐린이 필요해지면서 췌장에 부담이 가고, 결국 우리 몸의 인슐린 생산 능력이 감소해 혈당이 상승하는 당뇨병이 발생하게 된다.

실제로 허리둘레가 남자는 90cm, 여자는 85cm 이상이면 당뇨병 유병률이 2배 이상 증가한다. 당뇨병 환자의 75% 이상이 과체중 또는 비만인 것이 현 상황이다. 즉 비만이 당뇨병을 유발하고 당뇨병으로 인해 비만이 가중되는 악순환 고리를 형성하는 셈이다.

따라서 당뇨병 환자들은 혈당 조절과 함께 체중관리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식사·운동요법으로 체중을 줄이려는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치료제를 통해 올바른 치료를 받는 것도 필요하다. 혈당 조절 효과와 함께 체중 혈압 감소라는 이점을 지닌 최근 출시된 SGLT-2 억제제 계열의 당뇨병 치료제는 비만이 늘고 있는 한국 당뇨병 환자들에게 적합한 치료제다.

이 치료제는 신장에서 포도당 재흡수를 막고 과다한 포도당을 소변으로 배설시키는 작용을 한다. 이를 통해 하루에 배출되는 포도당의 양은 약 70g, 칼로리로는 280kcal 정도다. 포도당 배설로 체중이 2~3kg가량 줄고 삼투압 이뇨 작용으로 혈압도 낮아지는 것이다.

당뇨병은 그 어떤 병보다도 삶의 질과 밀접히 관련된, 장기간 관리해야 하는 만성질환이다. 혈당 조절만으로는 심혈관 질환 등의 합병증을 예방하기 어려울 수 있다.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당뇨병 환자들이 혈당 낮추기와 함께 체중 혈압 등 당뇨병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각적인 요인에 눈을 돌려 통합적인 질병 관리를 하기 바란다.

골형성단백질 치료, 턱뼈괴사증에 효과↑

골다공증 치료에 사용되는 '비스포스포네이트'를 4년 이상 복용하거나 '스테로이드' 등과 함께 복용하면 치조골과 잇몸에 괴사·감염 등이 발생해 턱뼈괴사증을 유발하는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약물로 인한 턱뼈괴사증을 치료할 때 골형성단백질(BMP)을 이용하면 치료 횟수가 감소하고 수술 성과가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김선종(사진) 이대목동병원 치과 교수팀이 발표한 연구로 김 교수는 턱뼈괴사증 진단받은 환자 44명을 자가혈소판농축피브린(PRF) 치료를 동반한 그룹과 골형성단백질 치료를 동반한 그룹으로 나눠 분석했다.

분석 결과 골형성단백질 치료군이 반복 수술의 빈도와 치료의 완성도 등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김 교수는 "턱뼈괴사증은 심미·기능적인 문제를 가져오는 데 특히 노인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 골형성단백질 치료법의 발전을 통해 환자의 치료 횟수와 치료 결과를 예견할 수 있다는 데 이번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최근 일본 삿포로에서 열린 '제9회 아시아 임플란트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됐으며 영국 구강악안면외과 학회 저널(British Journal of Oral & Maxillofacial Surgery) 10월호에 게재될 예정이다.

/유현희기자

JTI코리아 이나스타시오스 싯사스 대표(왼쪽에서 두번째)가 회사 인근 레스토랑에서 매달 그 달의 인사 직원들과 함께 일상적인 얘기를 나누며 점심을 함께 하고 있다. /JTI코리아 제공

JTI코리아, 'GM 런치' 프로그램 눈길

수평문화 조성… 매달 대표이사 직원들과 식사

JTI코리아(대표 이나스타시오스 싯사스)가 매달 회사 대표 주최로 'GM(General Manager) 런치' 프로그램을 운영해 직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 많은 기업들이 '상명하복(上命下服)식' 문화가 일반적인 가운데 수평적 기업문화 조성의 좋은 사례로 꼽히고 있다.

GM 런치 프로그램은 대표이사가 직원들과 함께 점심 만찬을 나누는 것. 인사한 달의 직원들과 매달 국적, 부서, 직급, 연차에 상관 없이 참석하게 된다.

올해로 입사 2년차인 예비우스(마일드세븐) 신보영 브랜드 매니저는 "여러 국적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일하기 때문에 같이 일하는 부서 혹은 같은 연차의 사람들끼리 친해지기 쉬운데 이런 자리를 통해서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뿐 아니라 전보다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어, 직급, 부서 등에 상관 없이 서로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취임한 싯사스 대표는 이처럼 격이 없는 소통을 통해 크고 작은 문제를 개선하기도 하고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며 서로의 작은 즐거움도 나누기도 한다.

이 회사는 또 '리사이클링 데이(Recycling Day)'라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평소 퇴근시간보다 1시간 일찍 업무를 종료하고 회사 인근의 레스토랑에서 직장 동료들과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분기별로 열리는 이 프로그램은 GM런치와 함께 국적·직급·연차·성별에 구애 받지 않기 때문에 수평적 관계를 증진하고 일상적인 업무에 활력을 불어 넣는 데 큰 도움을 준다.

이런 JTI코리아의 수평적 기업문화는 젊은 층이나 외국 경험이 많은 30~40들에게도 긍정적 인식을 심어줘 입사 지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열린 JTI코리아의 입사 지원 프로그램인 '점프(JUMP)'에는 70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장윤희기자

뷔페 '바나나프라이' 인기

'성하요리 대축제'로 고객 건강까지 챙겨

이미 각종 포털에서 강남역 맛집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부티크 뷔페 '바나나프라이'(Bananafry.co.kr)가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이 뷔페가 지난 23일 'KBS생생정보통'에 출연하면서 그동안 입소문만으로도 누리던 호평을 입증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다양한 콘셉트의 요리 행사를 벌여왔던 바나나프라이(대표 김진호)는 올 여름철을 맞아 특별하게 건강까지 생각한 '성하요리 대축제'를 기획하고 고객들의 성원에 보답키로 했다.

이번 행사에선 여름철 대표 보양식인 장어구이와 보양식 양시대함을 비롯해 전문 셰프의 정성이 들어간 양갈비 스테이크를 준비했다.

어린이는 물론 가족단위 단체객에게 더없이 좋은 하와이안 레몬살몬, 러시아산 대게, 코코넛새우, 하몽 등이 잃어버린 여름철 입맛은 물론 영양도 챙기도록 돕는다.

특히 여성 고객들이 선호하는 무화과 등 신선 과일과 마카롱, 이탈리안 젤라또 등의 메뉴 구성은 디저트만으로도 맛의 향연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메뉴의 양보다는 질'로 승부한다는 바나나프라이의 경영 방침은 특급호텔 총 주방장을 지낸 김진호 대표의 고집으로 계속되고 있다.

김진호 대표는 "직접 엄선한 신선한 재료와 조리법으로 최고의 먹거리를 준비해 가족 모두 즐길 수 있는 식사시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바나나프라이'는 이번 행사 이외에도 가족과 연인 등의 고객들을 위해 식사권 추첨 이벤트, 샴페인 무제한 제공 이벤트 등을 통해 고객들에게 고급스런 맛과 함께 재미까지 더해주고 있다.

예약 문의 02)532-7700

/정영일기자 uma@metroseoul.co.kr

'제과업계 피카소'의 마카롱 현대백화점은 29일 무역센터점 지하 1층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랑스 디저트 브랜드 '피에르 에르메' 국내 첫 번째 매장을 선보인다. '제과업계 피카소'로 불리는 피에르 에르메는 세계 최정상급 파티쉐로 프랑스 최고 훈장인 '레지옹 도뇌르'를 받기도 했다. 다음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자르뎅 베 다 롱' 마카롱 컬렉션을 만나볼 수 있다. /현대백화점 제공

'한식 홍보 포스터' 수상

한국관광공사(사장 변추석)는 아시아태평양관광협회(PATA) 골드 어워드 2014에서 선보인 한식 홍보 포스터가 마케팅 미디어 포스터 부문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PATA는 매년 전 세계 회원사를 대상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수행한 마케팅·환경 보존사업·교육훈련 프로그램·광고·관광영상·포스터 등 25개 부문에서 최우수작을 1점씩 선정해 시상한다.

올해로 15회째를 맞았으며 64개 기관에서 출품한 작품 중 181개 작품이 최종 심사를 받았다. /김학철기자 kimo@metroseoul.co.kr

행운 텀블러 한정 판매

커피전문점 엔제리너스커피(대표 노일식)가 수험생을 위한 '행운 텀블러'를 한정 판매한다.

이 제품은 수능 100일을 앞두고 수험생에게 행운과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특별 제작된 제품이다.

고객이 직접 작성한 응원 메시지에 행운을 상징하는 네잎클로버를 더해 하나뿐인 텀블러를 만들어 선물할 수 있다.

총 1500개만 판매하며 30일부터 엔제리너스 매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가격은 1만7000원.

텀블러 신제품 구매 고객에게는 아메리카노 스몰사이즈 무료 쿠폰이 증정된다. /정영일기자

"우리 아이 안전한 여름 휴가"

유통업계 '안전 마케팅' 활발

유통업체들이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안전 휴가' 마케팅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유아용 카시트 기업 순성산업은 안전 운전과 물놀이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리솜스파캐슬과 손잡고 '안전하게 (樂樂) 이벤트'를 실시한다.

다음달 17일까지 순성산업 블로그에서 안전하게 이벤트 페이지를 스크랩하고 댓글로 URL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순성 데일리 카시트와 선크림·유아용 비치가운 등을 선물로 준다. 또한 8월 23일 리솜스파캐슬 천천향에서 열리는 안전하게캠프에 사전 신청하면 총 40명에게 리솜스파캐슬 천천향 입장권을 제공한다.

휴가시즌은 1년 중 미아 사고 발생률이 가장 높은 시기이기도 하다.

11번가는 다음달 17일까지 팔찌·목걸이 등 미아방지용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올여름에는 스마트폰이나 GPS 기술을 활용, 보다 정확한 아이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손목밴드나 목걸이 형태의 웨어러블IT 미아방지 위치추적기가 주목 받고 있다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

휴가지에서 자칫 소홀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아이들의 청결과 위생 관리다. 높은 기온으로 세균 번식이 활발한 여름철에는 음식뿐 아니라 아이 입에 직접 닿는 식기 위생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유아식기 브랜드 릴팡의 '프렌세스 올인원 가방 수저통 식판 세트'는 고품질 스테인리스라 통째로 삶을 수 있어 위생적이다. 또한 뚜껑에 달린 수저통은 기존 천 소재의 수저집에 비해 세척과 건조가 쉬워 세균 번식에 대한 걱정까지 덜어준다. /서지희기자 pjw@

손예진(32)이 멋있어졌다. 선량한 남자들도 단숨에 휘어잡는 카리스마 넘치는 여자 해적으로 말이다. 크고 작은 도전을 통해 작품들을 선택해온 그녀에게 다음달 6일 개봉할 '해적: 바다로 간 산적'(이하 '해적', 감독 이석훈)은 액션이라는 새로운 경험을 선사했다. 또 한 번의 과감한 변신이다.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멋있는 여전사로 과감한 변신

영화 '해적: 바다로 간 산적' 손예진

'해적'은 조선의 건국을 앞두고 고려가 국새를 삼켜버리는 사건이 발생하자 이를 찾으려는 산적과 해적, 개국 세력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 손예진은 해적단을 이끄는 여자 두목 여월 역을 맡았다. 매력적인 캐릭터가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신선했어요. 앞으로 한국영화에서 여자 해적이 등장할 일이 없을 테니까요." 두려움 때문에 피해왔던 액션 연기도 이번만큼은 "제대로 해보고 싶다"는 바람이 있었다.

캐릭터를 만들어가는 과정은 어느 작품들처럼 쉽지 않았다. 롤 모델도 없었기에 의상과 메이크업 등을 통해 독창적인 모습을 만들어야 했다. 해적 두목으로서 여월이 보여주는 카리스마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다.

"제도 모르게 하는 여성스러운 표정과 몸짓을 배려야 했어요. 남자들 사이에서도 최대한 멋있게 보여야 됐으니까요. 말투에서도 무게감을 가지고 했고요. 다른 배우들을 보면서 '너희들은 다 내 부하들이라'며 속으로 되뇌기도 했죠(웃음)."

"그 장면이 없었다면 여월은 너무 단선적인 캐릭터가 됐을 거예요. 여월이 처음으로 자신의 심적를 드러내는 순간인 만큼 웃기기보다 자연스럽게 연기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자신도 모르게 여성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순간이었죠."

그럼에도 손예진이 '해적'을 통해 듣고 싶은 말은 "예쁘다"가 아닌 "멋있다"다. "여월은 남자들까지 아우르는 카리스마 있는 해적 이잖아요. 그런 여월이 예쁘다거나 섹시하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죠(웃음)."

데뷔 초반 손예진은 청순가련한 이미지로 남성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스타덤에 올랐다. 그러나 작품마다 반복적인 연기를 하는 것이 싫어서 끊임없이 변화와 도전을 추구해왔다.

20대 나이에 유부녀와 이혼녀 등 쉽지 않은 역할들도 소화한 것은 그런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지금은 '타워'와 '해적'처럼 블록버스터 영화에도 나름의 매력을 느끼며 작품과 연기에 대한 생각도 변하고 있다.

> 신선한 캐릭터에 액션연기까지 도전
> 카리스마 여해적 "멋있다"는 말 듣고파
> 두려움 없이 다양한 작품 꾸준히 할 것

작정하고 도전한 액션 연기도 고된 경험이었다. 해적선 위에서 펼치는 액션 신에서는 멋진 모습을 담기 위해 추위를 무릅쓰며 와이어를 다고 몇 번이고 뛰고 또 날았다. 여월이 15m 가량 되는 높이에서 뛰어내리는 장면은 어떻게든 해내야 한다는 마음으로 무서움과 싸워 이겼다.

여월과 고래의 교감을 보여주는 장면은 수심 5m 깊이에서 촬영을 감행했다. 배우에게는 위험할 수 있는 촬영이었지만 손예진은 '악'으로 버티며 힘든 장면을 모두 소화했다.

강인한 카리스마만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산적단 두목인 장사정(김남길)과 단 둘이 남겨진 시퀀스에서는 그녀의 전매특허와도 같은 두근거리는 로맨스 연기를 볼 수 있다.

최근 출연한 예능 프로그램 MBC '무한도전'에서의 활약은 손예진의 변화를 잘 보여준다. 손예진은 "여배우는 하나의 막이 있는 것처럼 예쁜 모습을 보여야 할 때가 있다"며 "나이가 들면서 여유와 편안함이 생기다 보니 친한 사람들에게만 보여주던 짓궂음과 편안함, 털털함이 조금 더 많이 보이는 것 같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스타성과 대중성을 겸비한 몇 안 되는 여배우로서 남모를 고충도 있다. 기대만큼 작품이 사랑 받지 못해 속상한 적도 있었다. 그럼에도 손예진은 "흥행에 연연하지 않고" 꾸준히 작품을 이어갈 계획이다.

"배우는 두려움이 없어야 성장한다고 생각해요. 두려우면 작품을 다양하게 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무식하게' 연기할 생각이에요."

사진/롯데엔터테인먼트 디자인/박은지

컴백하자마자 JYJ 차트 싹쓸이

3년만에 정규앨범 발표…타이틀곡 '백 싯' 9개 음악사이트 1위

그룹 JYJ(사진)가 3년 만에 발표한 정규앨범 타이틀곡으로 음원차트 정상을 휩쓸었다.

JYJ가 29일 발표한 2집 '저스트 어스'의 타이틀곡 '백 싯'은 발매와 함께 멜론·지니·엠넷·소리바다·네이버뮤직·다음뮤직·벅스·올레뮤직·싸이월드뮤직 등 9개 음악사이트의 실시간 차트 1위를 석권했다.

JYJ는 타이틀곡뿐 아니라 다른 수록곡도 차트 톱 10에 대거 진입하는 이른바 '줄세우기'를 보이며 변함 없는 인기를 확인했다.

이번 앨범에서 JYJ는 이전보다 자연스럽고 편안한 음악을 선보였고, 솔직한 자신들의 이야기를 노랫말로 표현했다.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강렬하고 화려한 앨범보다 언제 어디서나 부담 없이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곡을 수록했다"고 밝혔다.

음원과 함께 공개한 '백 싯'의 뮤직비디오 본편 역시 몽환적인 분위기와 멤버 각각의 매력을 담은 영상미로 눈길을 끌고 있다. 오랜만에 보는 JYJ의 군무 역시 팬 마음을 설레게 한다.

타이틀 곡외에 JYJ와 세계적인 팝스타 크리스 브라운의 만남만으로 화제를 모은 수록곡 '발렌타인'도 안기다. '발렌타인'은 강렬한 비트와 중독성 있는 후렴구, 섹시한 가사가 JYJ의 목소리와 어우러져 색다른 느낌을 표현했다.

또 김재중의 '디어 J', 박유천의 '서른', 김준수의 '일곱 살' 등 멤버들의 솔로 곡 역시 각기 다른 색깔의 감성을 담아 매력있는 목소리로 표현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JYJ는 앨범 발매에 이어 다음달 9일 잠실 올림픽주경기장에서 아시아 투어 '더 리턴 오브 더 킹'의 첫 공연을 열고 4만여 명의 팬과 만난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4인 4색' 레드벨벳 끌리는 걸

악기·외국어 다재다능 멤버 프로필 공개

SM엔터테인먼트 신인 걸그룹 레드벨벳의 프로필이 공개됐다.

레드벨벳은 지난 28일 데뷔곡 티저 영상을 공개하며 본격적인 데뷔를 알렸을 뿐 구체적인 프로필은 공개하지 않아 궁금증을 켰었다.

다음달 4일 데뷔하는 레드벨벳은 슬기(20), 아이린(23), 웬디(20), 조이(18)로 구성됐다. 2007년 SM 토요 공개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슬기는 노래와 댄스, 기타연주, 일본어 등 여러 분야의 실력을 고루 갖췄다. 헨리의 신곡 '판타스틱' 뮤직비디오 출연과 수록곡 피처링에도 참여하는 등 다양한 모습으로 화제를 모았다.

아이린은 2009년 SM에 캐스팅 된 멤버다. 매력적인 외모는 물론 노래, 랩, 모던댄스 등 다재다능한 면모를 지녔다. 헨리의 '1-4-3(아이 러브 유)' 뮤직비디오에 특별 출연해 시선을 사로잡기도 했다.

웬디는 2012년 'SM 글로벌 오디션 in 캐나다'를 통해 선발됐다. 뛰어난 영어 실력과 플루트, 기타, 색소폰 등 출중한 악기 연주 실력, 탁월한 가창력을 겸비했다. 또 드라마 '미미' OST 수록곡 '숨을 속에 그댈 지워야만 해'를 불러 음악 팬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SM의 차세대 여성 보컬로 주목받고 있다.

조이는 SM루키즈로 활동한 슬기, 아이린, 웬디와 달리 기존의 SM 스타 인큐베이팅 시스템을 거치지 않아 이번에 처음 공개됐다. 2012년 SM 글로벌 오디션 in 서울에서 선발됐으며 귀여운 외모와 함께 노래, 춤 등 다방면에 재능을 갖춘 신예다.

한편 레드벨벳은 다음달 4일 각종 음악사이트를 통해 디지털 싱글 '행복'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정성훈기자

레드벨벳(왼쪽부터 웬디, 슬기, 조이, 아이린)

소녀시대 일본서 또 신기록

'더 베스트' 세 번째 오리콘 앨범 주간차트 1위

소녀시대(사진)가 일본에서 또 한번 새로운 기록을 썼다.

29일 일본 오리콘 측은 홈페이지 뉴스에 '소녀시대 앨범 세 작품째 1위, 여자12악방 넘어 신기록'이라는 제목으로 소녀시대의 1위 소식을 전했다. 오리콘은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여성그룹으로는 중국의 여자12악방의 두 작품 앨범 차트 1위 기록을 넘어섰다"고 보도했다.

23일 현지에 발매된 소녀시대 일본 첫 베스트 앨범 '더 베스트'는 오리콘 앨범 일간차트 1위에 이어 주간차트에서도 정상을 차지했다. 이로써 소녀시대는 정규 1집 '걸스 제너레이션'(2011)과 정규 3집 '러브&피스'(2013)에 이어 세 번째로 오리콘 앨범 주간차트 1위를 기록했다. 이는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여성그룹 사상 최다 1위 기록이다.

이번 앨범에는 '지니', '지', '미스터 택시' 등 히트곡을 비롯해 일본어 버전 '미스터미스터', 발라드 신곡 '엔디스트 럭터' 등 모두 18곡이 수록됐다.

한편 소녀시대는 첫 베스트 앨범 발매를 기념해 일본 주요 지역에서 대형 이미지 전광판 광고를 하고 있다.

/김보라기자 ybk@

슈주 이특 조용한 제대

9월 슈퍼쇼로 활동 재개

그룹 슈퍼주니어의 이특(본명 박정수·사진)이 29일 오전 육군 12사단 을지부대에서 만기 제대했다.

현장에는 팬이 모여 있었지만 이특은 군을 둘러싼 사회적 정서를 고려해 특별한 전역식은 치르지 않았다. 2012년 10월 입대한 그는 국방홍보지원대에서 복무했다.

그러나 지난해 일부 연예병사들의 부실 복무가 논란이 되면서 국방홍보지원대가 폐지되자 을지부대에 재배치됐다.

앞서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취재진 인터뷰와 팬을 위한 별도의 행사 없이 전역한다"며 "조용히 제대하고 싶어하는 이특의 의사를 존중했다"고 밝혔다.

이특은 하반기 슈퍼주니어로 컴백한다. 오는 9월 서울을 시작으로 열리는 슈퍼주니어 월드투어 '슈퍼쇼6'에 참여할 예정이다.

/정혜전기자

깐깐한 그녀들의 **리얼검증 프로젝트**

| 매주 **수**요일 **밤 12시** |

그렇고 그런 **뷰티쇼들**

뻥치시네!

코믹·풍자로 가요계 폭로한다

'엔터테이너스' 제작발표회에 참석한 딘딘과 윤종신·김예림(가운데) CJ E&M

엠넷 '엔터테이너스' PD "뜨끔할 기획사 많을 것"

박준수 엠넷 PD가 가수 윤종신과 손잡고 신작 '엔터테이너스'로 가요계의 어두운 이면을 폭로할 예정이다.

'엔터테이너스'는 연예 최고를 꿈꾸는 야심가 윤종신이 데뷔 5년차 아이돌 그룹 딘딘의 프로듀싱을 맡으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블랙 드라마다. 박 PD가 새롭게 선보이는 장르인 블랙 드라마는 가상의 이야기에 실제 인물들이 등장해 연기를 펼치는 리얼리티 풍자극이다.

박 PD는 29일 상암동 CJ E&M 센터에서 열린 '엔터테이너스' 제작발표회에서 "앞서 '음악의 신' '방송의 적'이 코믹한 상황을 리얼리티처럼 그린 것이라면 '엔터테이너스'는 가상의 이야기를 실제 인물들이 연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엔터테이너스'에서 윤종신은 악덕의 주체가 돼 가요계의 어두운 이면을 보여줄 예정이다. 아마 방송을 보면 뜨끔할 분들이 많을 것"이라며 "현재 가요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법적인 대응과 합법이어도 부조리한 일들을 보여줄 것이다. 모든 연예 기획사들을 놀라게 하고 싶다"고 포부를 전했다.

앞서 '음악의 신'(2012) '방송의 적'(2013) 등을 통해 실제와 허구의 경계를 오가는 연출로 좋은 반응을 이끌어 냈던 박 PD는 '엔터테이너스'를 통해 음원 사재기 의혹, 부당 계약, 방송국과의 거래설 등 가요계의 민감한 이슈를 특유의 감각과 풍자로 풀어낸 것으로 예상된다.

'엔터테이너스'에서 악랄한 야심가를 연기하게 된 윤종신은 "실제로 이런 인물이 있다면 매우 비열한 사람일 것"이라며 "연기가 너무 실감나 거리에서 돌 맞을까 걱정된다"고 너스레를 떨기도 했다. 이어 "방송계에서 일하는 분들도 자신의 이름 그대로 등장하는 등 가요계 현실이 많이 녹아있어서 실감날 것"이라며 기대감을 전했다.

이날 제작발표회에 함께한 딘딘의 나엘은 "윤종신 선배가 좋은 분이란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함께 연기를 해보니 실제로 야심 가득한 사람인지 헷갈릴 정도"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한편 '엔터테이너스'엔 윤종신과 딘딘을 비롯해 미스틱 89의 김예림·박지윤·조정치 유지 등도 실제 본인 캐릭터로 출연할 예정이다. 첫 방송은 31일 자정이다.

/김지민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심은경 '노다메 칸타빌레' 주연

주원과 호흡…"악기 연주 연습 돌입"

배우 심은경(사진)이 KBS2 새 월화드라마 '노다메 칸타빌레'(미정) 여주인공으로 확정됐다. 남자 주인공 차유진 역의 주원과 호흡을 맞추게 됐다.

드라마 제작사 그룹에이트는 29일 심은경의 캐스팅 확정을 공식 발표했다. 앞서 심은경은 캐스팅 0순위로 거론됐고 가장 먼저 제의를 받았으나 영화 촬영 스케줄이 겹쳐 출연을 고사한 바 있었다. 그러나 애당초 출연하기로 했던 영화 일정이 뒤로 밀리게 되면서 결국 '노다메 칸타빌레'에 출연하게 됐다.

그는 작품에서 4차원 천재 피아니스트 오소리 역을 맡았다. 심은경은 좌충우돌 캐릭터를 천연덕스럽게 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악기 연주도 해야 한다.

제작사의 한 관계자는 "심은경은 평소 클래식을 좋아하지만 다룰 줄 아는 악기는 없다"며 "오케스트라 단원들과 함께 피아노 등을 한 달 정도 배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력파 배우"라며 "한국판은 일본 드라마가 아닌 만화를 원작으로 할 것이며 심은경만의 오소리를 완성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심은경은 영화 '써니' '광해, 왕이 된 남자' '수상한 그녀' 등으로 영화계에서 흥행력과 연기력을 모두 인정받고 있다. 특히 올 초 '수상한 그녀'로 800만 관객을 동원, 2014 '백상예술대상' 여자 최우수 연기상을 받았다.

한국판 '노다메 칸타빌레'는 클래식을 전공하는 청춘들이 음악에 열정을 보이며 꿈과 사랑에 다가가는 모습을 감각적으로 담을 예정이다. 다음달 첫 방송되는 '연애의 발견'의 후속 작으로 오는 10월 방송된다.

/[illegible]

김새론·김유정·김소현(왼쪽부터)

안방은 '소녀시대'

10대 배우 김새론·김유정·김소현 ·외모+연기 탁월

10대 배우 김새론·김유정·김소현이 드라마 주연으로 맹활약하고 있다. 청소년 배우가 주인공 어린 시절을 연기하거나 조연을 맡는 게 일반적이던 과거와 다르다.

김새론(14)은 KBS2 금요드라마 '하이스쿨 러브온'에서 인간이 된 천사 이슬비를 연기하고 있다. 신비로운 분위기와 소녀다운 귀여운 모습이 천사 역할에 부합한다는 평가다.

2009년 9세에 영화 '여행자' 주연으로 데뷔했다. 이후 영화 '아저씨' '도희야' 드라마 '여왕의 교실' 등 다수의 작품에 출연했다. 주로 나이에 비해 성숙하고 무게 있는 역할을 맡았다. 그러나 이번 드라마에선 엉뚱하게 변신했다.

김새론은 지난 7월 드라마 제작발표회에서 "지금까지 어두운 느낌의 작품에 많이 출연했었는데 이번에는 색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김유정과 김소현은 15세 동갑내기다. 두 사람은 각각 SBS 새 월화극 '비밀의 문'과 OCN 드라마 '라켓'으로 시청자를 만날 예정이다.

김유정은 '비밀의 문'에서 여주인공이자 가상 인물 서지담 역을 맡았다. 사도세자 부인으로 정조의 어머니인 혜경궁 홍씨와 대립한다. 김유정은 한석규(영조 역), 이제훈(사도세자 역)과 함께 출연한다.

작품은 강력한 왕권을 지향했던 영조와 신분의 귀천이 없는 세상을 주장했던 사도세자의 부자 간 대립을 담는다. 여기에 의궤 관련 살인 사건이라는 궁중 미스터리를 더해 역사를 재해석한다. '유혹'의 후속 작으로 9월 중순 방송될 예정이다.

김소현은 OCN 새 드라마 '라켓'에서 1인2역과 장르물에 처음 도전한다. 주연으로 발탁된 그는 천정명의 첫사랑 승희와 사춘기 여고생 조은비 역을 맡는다. 김소현은 최근 공개된 예고 영상에서 성숙하고 몽환적인 외모로 화제가 됐다. 짙은 화장에 큰 링 귀걸이를 하고 있는 모습이 연기 변신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다.

드라마의 한 관계자는 "무궁무진한 연기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며 "청순한 승희와 불량한 조은비를 소화할 배우다"고 극찬했다. 작품은 단호한 검사와 정체불명 X의 추리 대결을 그린 스릴러물이다. OCN 메디컬 범죄 수사극 '신의 퀴즈4' 후속으로 다음달 10월 첫 방송된다.

/전효진기자 [illegible]

영화 '명량' [illegible] 제공

두려움을 용기로 바꾼 리더십

이순신 장군의 인간적 고뇌 그려

film review

김범준기자 [illegible]

■명량

1597년 조선은 임진왜란에 이은 왜군의 두 번째 침략으로 또 한 번 위기에 처한다. 국가의 존망이 달린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선조는 바다를 포기하고 육지에서 왜군과의 전쟁을 준비한다.

그러나 이순신 장군은 바다를 지켜야만 나라를 지킬 수 있다고 굳게 믿었다. 그런 강한 신념으로 전라남도 진도 앞바다인 울돌목에서 단 12척의 배를 가지고 왜군의 북상을 막기 위한 전쟁에 나선다.

'명량'(감독 김한민)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참전했던 해전들 중 가장 위대한 승리로 남아 있는 명량대첩을 영화화했다. 330척의 왜선에 12척의 배로 맞서야 했던 이순신 장군은 빠른 조류를 이용해 기적 같은 승리를 이끌어냈다. 이는 이순신 장군의 영웅적인 면모를 잘 보여주는 전쟁으로 역사 속에 기록돼 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잘 알만한 익숙한 이야기다. 하지만 김한민 감독은 역사적인 기록에는 남아 있지 않은 이순신 장군의 내면에 관심을 기울인다. 영웅이기 이전에 평범한 한 사람이었을 이순신의 인간적인 고뇌는 '명량'의 중요한 테마다. 모두가 패배할 것이라고 예상한 전쟁을 앞두고 이순신 장군이 겪는 고민과 갈등은 배우 최민식의 열연을 통해 영화에 묵직한 깊이를 더한다.

전쟁을 앞둔 이순신 장군은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아들에게 말한다. 이를 위해 그는 자신의 목숨까지 내던지며 왜군과의 싸움에 나선다. "무릇 장수된 자의 의리는 충을 좇는 것이고 충은 백성을 향해야 한다"는 대사는 이순신 장군의 결단이 백성들을 위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임을 잘 보여준다. 그렇게 영화는 오직 백성과 나라를 생각하며 두려움을 용기로 바꾼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을 이야기한다.

영화 후반부 61분가량을 채우고 있는 해전 신은 예상대로 화려하다. 그러나 관객의 마음을 더 사로잡는 것은 뜨겁게 끓어오르는 민족 정서다. 이순신 장군 외에도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생각보다 존재감이 잘 드러나지 않는 점은 아쉽다. 31일 개봉. 15세 이상 관람가.

"화투 첫 경험 정말 재밌어"

'타짜2' 신세경 여주인공으로 스크린 컴백

배우 신세경(사진)이 영화 '타짜-신의 손'(이하 '타짜2', 감독 강형철)으로 2년여 만에 스크린에 돌아온다.

'타짜2'는 삼촌 고니를 닮아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손재주와 승부욕을 보인 대길(최승현)이 타짜 세계에 겁 없이 뛰어들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 신세경은 대길의 첫사랑인 미나를 연기했다.

29일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에서 열린 제작보고회에서 신세경은 "이번에 화투를 처음 배웠다. 정말 재밌었다. 너무 깊이 빠지지 않을까 걱정할 정도로 빠져 있었다. 프로처럼 보이기 위해서 손기술 연습도 많이 했다"며 캐릭터를 위한 노력을 털어놨다.

이에 최승현은 "신세경이 화투를 진짜 잘한다. 내가 한 번도 이겨본 적 없다"며 화투 실력을 인정했다. 신세경은 "최승현이 내게 빛이 좀 많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이번 작품은 신세경과 이하늬가 함께 출연해 화제를 모았다. 이날 행사에서 이하늬는 신세경에 대해 "우울한 역할을 많이 해서 성격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현장에서는 뛰어다니는 망아지 같았다. 맑고 순수했다"고 말했다. 신세경도 "이하늬는 굉장히 도도할 것 같았는데 같이 작업해보니 정말 털털했다"고 전했다.

흥행 공약도 내걸었다. 신세경은 "500만 관객을 돌파하면 관객 70분의 이마에 뽀뽀를 하겠다"고 말했다. 최승현도 "50명 관객들의 이마에 뽀뽀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타짜2'는 허영만 화백의 만화 '타짜' 시리즈 중 2부인 '타짜-신의 손'을 원작으로 한다. 2006년 개봉한 최동훈 감독의 '타짜'에 이은 속편인 만큼 영화계의 관심도 뜨겁다.

최동훈 감독에 이어 메가폰을 잡은 강형철 감독은 "부담보다는 관객의 한 사람으로서 영화가 보고 싶었다"며 연출 제안을 수락한 이유를 밝혔다. '타짜2'는 오는 9월 추석 시즌에 개봉할 예정이다. /장병호기자

송혜교 여신서 엄마로

'두근두근 내 인생'서 소탈하고 성숙한 연기

배우 송혜교(사진)가 영화 '두근두근 내 인생'(감독 이재용)으로 모성애 연기를 선보인다.

'두근두근 내 인생'은 열일곱 나이에 자식을 낳은 어린 부모와 열일곱을 앞두고 여든 살의 신체 나이가 된 아들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송혜교는 16세 아이를 둔 33세 젊은 엄마 미라를 연기했다.

극중 미라는 언제나 당차고 속도 깊지만 한번 틀어지면 10대 시절의 성격이 튀어 나오는 반전 매력을 지닌 인물. 아들 아름이에게는 더없이 자상한 엄마로 따뜻한 모성애도 보여준다. 송혜교는 한층 깊어진 눈빛과 포근한 연기로 캐릭터에 깊은 감성을 불어넣었다. 자연스럽고 소탈한 모습, 한층 성숙한 연기로 관객들에게 깊은 공감대를 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용 감독은 송혜교에 대해 "현실감 있고 억척스러운 연기가 가능한 배우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당찬 엄마 미라와 같은 역할이라면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았다"며 강한 신뢰를 드러냈다.

'두근두근 내 인생'은 김애란 작가의 동명 베스트셀러 원작, 그리고 송혜교와 강동원의 만남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오는 9월3일 개봉 예정이다.

/장병호기자

'가디언즈…' 2017년 돌아온다

1편 개봉 앞두고 속편 발표 '이례적'

마블 스튜디오의 신작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사진)가 속편 제작을 확정했다.

지난 26일(현지 시간) 마블 스튜디오는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코믹콘을 통해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속편의 개봉 시기를 2017년7월28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는 속편 제작까지 확정함으로써 마블 스튜디오 라인업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을 입증했다. 또한 1편의 개봉을 앞둔 상황에서 속편 제작 소식까지 전해진 것은 이례적인 일로 작품에 대한 마블 스튜디오의 자신감을 느낄 수 있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는 마블 스튜디오가 처음으로 선보이는 SF 장르 이작품이다. 스타로드, 가모라, 드랙스, 로켓, 그루트 등 우주의 무법자들이 겪는 모험담을 그렸다. 국내 개봉은 오는 31일 예정이다. /장병호기자

손흥민, 걸스데이 민아와 사랑 골인?

SNS로 알게 된 친구사이… 손, 오늘 서울서 내한경기

축구대표팀 간판 골잡이인 손흥민(22·레버쿠젠·사진 왼쪽)이 인기 걸그룹 걸스데이의 민아(오른쪽)와 열애설에 휘말렸다.

29일 온라인에는 지난 16일~17일 손흥민과 민아가 데이트하는 듯 보이는 사진이 공개됐다. 이에 따르면 손흥민과 민아는 바쁜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늦은 저녁 시간 강남구청역 근처와 한강공원 잠원동 등에서 약 4시간 정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아의 소속사는 "SNS로 알게 된 친구 사이"라며 "두 번 만난 게 전부"라고 밝혔다.

손흥민은 17일 민아를 위해 이벤트도 준비했다. 직접 청담동의 한 꽃가게에서 꽃다발을 주문한 뒤 걸스데이 숙소 근처인 강남구청역에 차를 세우고 브리포즈를 했다. 이에 민아는 환한 웃음을 지었다. 이후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길을 걷고 가벼운 스킨십을 나눴다.

손흥민은 2010년 독일 분데스리가 함부르크에서 프로에 데뷔한 후 세 시즌 동안 20골(73경기)을 넣으며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지난 시즌 레버쿠젠으로 이적해 10골(31경기)을 터뜨리며 활약했다. 2014 브라질 월드컵 알제리전에 골을 넣어 국민에게 위안을 주기도 했다.

민아는 2010년 걸스데이로 데뷔했다. 귀여운 눈웃음으로 남심을 흔들고 있는 그는 뛰어난 가창력까지 보유한 실력파 가수다. 최근 신곡 '달링'을 발표하고 절정의 인기를 누리고 있다.

한편 월드컵 이후 다음 시즌을 준비하기 위해 프리 시즌 경기를 뛰는 등 독일에서 훈련에 전념인 손흥민은 공교롭게 열애설이 나오기 직전 입국했다.

손흥민은 류승우(21)를 비롯한 소속팀 선수들과 함께 29일 오후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다. 2014 브라질 월드컵 당시 아쉬움으로 가득했던 어두운 표정과 달리 한결 밝아진 모습으로 입국장에 마중나온 팬과 만났다.

레버쿠젠은 30일 오후 7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FC서울과 경기한다. LG전자 초청 바이엘 04 레버쿠젠 한국투어 2014 라는 이름으로, 이번 경기에는 손흥민과 류승우를 비롯해 골키퍼 베른트 레노, 골잡이 슈테판 키슬링, 지몬 롤페스, 곤살로 카스트로 등 주전 선수들과 올 시즌을 앞두고 이적한 하칸 찰하놀루, 티다리오 크레시치 등도 출전한다.

손흥민은 31일 유소년 축구 클리닉에 참여하며 다음달 1일 레버쿠젠 구단과 함께 독일로 가 2014~2015시즌 준비에 들어간다.

/권효준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김효주·장하나 등 총상금 36억원 놓고 5주 연속 경기

'여름의 여왕'을 가리는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경기가 5주 연속 열린다.

KLPGA는 31일 개막하는 한화금융 클래식을 시작으로 다음달 31일 끝나는 체리티 하이원리조트 오픈까지 5주 연속 대회를 진행한다. 5개 대회 총 상금만 36억원으로 올 이후 성적에 따라 올해 상금왕의 윤곽도 드러날 전망이다.

첫 대회인 한화금융 클래식부터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우승 상금 3억원이 걸린 대회다.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는 김효주(19·롯데·사진)다. 이미 올 시즌 2승을 챙겨 4억7000만원의 상금을 기록하고 있다. 상금 랭킹 2위 장하나(2억8800만원)를 멀찌감치 따돌리고 상금 선두를 달리고 있다.

김효주가 이번 대회에서 우승을 한다면 사실상 상금왕을 굳힐 수 있다. 김세영(21·미래에셋)이 김효주의 독주에 맞선다. 그는 지난해 이 대회에서 2년 연속 우승을 노리던 유소연(24·하나금융그룹)과 연장 접전 끝에 역전 우승한 바 있다.

LPGA 투어에서 꾸준히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최나연(27·SK텔레콤)도 이번 대회에 출전해 우승을 노린다. 최나연은 2012년 이 대회에 출전해 공동 4위에 올랐다.

김효주와 함께 2승으로 다승 공동 선두를 달리는 신예 백규정(19·CJ오쇼핑), 백규정과 신인왕을 다투는 김민선(19·CJ오쇼핑)도 우승 후보다. /용순호기자 [illegible]

박소연·김해진 "내가 포스트 김연아"

새 프로그램 곡 발표

'포스트 김연아' 박소연(17·신목고·위 사진)과 김해진(17·과천고·아래)이 이번 시즌 새 프로그램의 곡명을 발표했다.

두 선수의 매니지먼트사인 올댓스포츠는 29일 "박소연의 2014~2015 시즌 쇼트프로그램 음악은 카미유 생상스의 바이올린곡 '서주와 론도 카프리치오소', 프리프로그램은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 오리지널 사운드트랙(OST)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두 프로그램의 안무는 모두 '피겨 여왕' 김연아(24)의 안무가인 데이비드 윌슨이 맡는다.

김해진은 쇼트프로그램 음악으로 조지 거슈윈의 '포기와 베스'를, 프리프로그램 음악도 거슈윈의 음악인 '랩소디 인 블루'로 정했다. 쇼트프로그램의 안무는 2006 토리노 동계올림픽 은메달리스트인 스테판 랑비엘(29·스위스)이, 프리스케이팅은 데이비드 윌슨이 맡았다.

올댓스포츠는 박소연의 새 프로그램에 대해 "쇼트프로그램은 우아하면서도 화려한 선율이 돋보이는 곡이며 프리스케이팅은 비극적인 사랑을 그려낸 애절함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김해진에 대해서는 "김해진이 쇼트프로그램에서는 익살적이고 매혹적인 음악에 맞춰 공격적인 표현을 보여주고 프리스케이팅에서는 당당한 모습을 선보일 것"이라고 전했다.

두 선수는 다음달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리는 아시안 트로피 대회에 나설 예정이다. /장성훈기자 ysw@

프로야구 전적 (29일)

■ 목동

팀	1~3	4~6	7~9	R
한화	000	110	100	3
넥센	036	110	42X	16

■ 대구

팀	1~3	4~6	7~9	R
LG	021	000	310	7
삼성	002	110	200	6

■ 사직

팀	1~3	4~6	7~9	R
두산	[illegible]	100	101	12
롯데	000	010	000	1

■ 마산

팀	1~3	4~6	7~9	R
KIA	100	100	010	3
NC	100	022	02X	7

추신수 5경기 연속 안타 행진

전반기 주춤했던 추신수(32·텍사스 레인저스·사진) 방망이가 뜨거워 지고 있다.

추신수는 29일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 글로브 라이프 파크에서 벌어진 미국프로야구 뉴욕 양키스와의 홈경기에서 1번 타자 우익수로 출전해 4타수 1안타를 때렸다. 시즌 16번째 2루타로 5경기 연속 안타를 이어갔다. 추신수의 타율은 0.243으로 변함없었으나 출루율은 0.354로 약간 내려갔다.

텍사스는 갈 길 바쁜 양키스를 4-2로 물리쳤다.

한편 텍사스의 선발 투수 다르빗슈 유는 7이닝을 2점으로 막고 승리를 따내 3년 연속 10승 고지를 밟았다. /[illegible]기자

tvN 농디컬 드라마

황금거탑

매주 | 수 | 밤 11시 tvN 방송